

천주의 성 요한의 길



—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천주의 성 요한 —



(재)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천주의 성 요한(1495.3.8 ~ 1550.3.8)



목 차

| | |
|--------|-----------------------------|
| | 서 문 · 01 |
| 첫 번째 | 섬김을 받기 보다는 섬기고자 · 03 |
| 두 번째 | 바쁜 하루를 위한 기도 · 05 |
| 세 번째 | 신세계 · 08 |
| 네 번째 | 내가 머무를 곳 · 11 |
| 다섯 번째 | 두 분의 요한 · 14 |
| 여섯 번째 | 왕립 병원 · 17 |
| 일곱 번째 | 부르심 · 20 |
| 여덟 번째 | 요한의 꿈 · 22 |
| 아홉 번째 | 하느님의 사업 · 24 |
| 열 번째 | 도움의 손길들 · 27 |
| 열한 번째 | 모든 여인들을 위한 축복 · 30 |
| 열두 번째 | 화해 그리고 신분 · 34 |
| 열세 번째 | 하루하루의 일들 · 38 |
| 열네 번째 | 모욕감과 사랑 · 42 |
| 열다섯 번째 | 요한의 목적지 · 46 |
| 열여섯 번째 |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 50 |
| 열일곱 번째 | 치유의 수확 · 53 |
| 열여덟 번째 | 요한의 마지막 임무 · 55 |
| 열아홉 번째 | 마지막 여정 · 57 |
| | 맺는 말 · 62 |
| 스무 번째 | 두 편지 · 63 |
| 스물한 번째 | 호스피탤러티 준비를 위한 성 요한 그란데 · 65 |
| 스물두 번째 | 성 요한 그란데와 흑사병 · 67 |

| | |
|---------|------------------------------|
| 스물세 번째 | 호스피탤러 준비를 위한 성 리카르도 팜푸리 · 69 |
| 스물네 번째 | 호스피탤러로서의 성 리카르도 팜푸리 · 72 |
| 스물다섯 번째 |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대 가치 · 74 |

서 문

16세기에 스페인 극작가 로페 펠릭스 데 베가 가르피오는 천주의 요한 이야기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렇게 찬탄했다: “천주의 요한, 그대의 삶에 비할 만한 소설이 어디에 있으리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천주의 요한 이야기는 듣는 것보다 들려주는 쪽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최초의 전기작가 프란치스코 데 카스트로보다 천주의 요한 이야기를 더 훌륭하게 들려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그의 저서 『천주의 요한의 생애와 그가 행한 성스러운 일들, 수도회 설립과 병원 초창기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이 선종한지 삼십 년이 채 못 되어 쓰여졌다. 이 책은 카스트로가 원장으로 있었던 그라나다의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 날마다의 생활을 고무시키고 지탱해주었던 천주의 요한에 대하여 알려지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수도회 호주 관구가 1997년에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이 책을 발간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스트로의 전기보다 훨씬 간략하고, 아울러 성인의 삶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천주의 요한의 생애 사건들을 현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과 자료들이 최근에 발행된 두 권의 책, 호세 마리아 하비에레가 쓴 『그라나다의 미치광이 천주의 요한』과 호세 산체스 마르띠네즈가 쓴 『천주의 성 요한의 영적 여정에서의 ‘자기 멸절 - 봉사 (Kenosis-Diakonia)’』에 실려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성인의 생애를 새롭게 구성해내면서 이 두 가지 문헌을 많이 참조했다. 연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 수도회 로마관구에 몸담고 있는 주세페 마글리오찌 수사의 연구결과와 저서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 글을 쓰는데 기꺼이 동의했으며, 글 쓰는 작업은 하나의 특권이자 기쁨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고행이기도 했다. 나는 천주의 요한의 생애에 있었던 사소한 사건을 잘라내야 할 때마다, 또는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을 찾아내지 못할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 천주의 요한의 말씀이 사건과 결부되는 경우에 이를 생략하거나 의역하거나 하는 일은 어쩌다가 한번 있을 뿐이다. 천주의 요한의 생애와 관련된 기본 사실들은 카스트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로서, 책 말미의 각주에다 설명을 다시 적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용문들에는 이탤릭체를 사용했다.

글이 간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천주의 요한의 생애와 관련된 몇몇 일화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나는 원래 독자의 신심을 부추

길 목적에서 기술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은 제외시켰다. 천주의 요한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일화들은 - 무척이나 비판적인 이 시대에 새삼 거론될 경우 -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였다. 이야기를 온전히 알고 싶은 독자는 카스트로의 원작을 읽어보도록 권한다. 내가 한 일은 이 작품을 알맞게 형태만 바꾼 것뿐이다.

이 이야기는 달력은 물론 시계를 가진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던 시절에 쓰여졌다. 그래서 “성 야고보 축일에 그 일이 있었다.” 든가 “그는 공작이 새 신부와 함께 집에 도착하던 날 태어났다.” 는 식으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 글을 읽으면서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연대기적 정확도가 결여된 점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던 당시의 시대감각을 보여주는 기회 정도로 여겨주기를 당부한다.

16세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인 만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모순된 점들과 불투명한 점들이 꽤나 들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천주의 성 요한의 생애와 시대를 연구하는 본회의 학자들 몇 명이 1997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라나다에서 가진 모임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었다. 나는 일치되지 않는 점들을 해결해야 할 때면 이 모임에서 나온 일치된 견해나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진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까닭에, 언어 문제는 절박한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기존에 있는 번역문들을 사용하지 않고 천주의 요한의 말씀들을 프란치스코 데 카스트로의 원본에서 직접 다시 번역해야 했다.

끝으로, 내가 이 책의 제목에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오늘날 그라나다에 사는 평민들이 천주의 요한을 그 칭호로 기억하고 있는데다가 그들이 그분의 동상이나 유해를 모시고 시내 거리를 행렬할 때마다 그 칭호로 인사하고 화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10일

호주. 시드니

브라이언 오도넬 수사

섬김을 받기 보다는 섬기고자

독 서

1550년 3월 8일

1550년 3월 8일 토요일, 스페인 남부 도시 그라나다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천주의 요한이 돌아가셨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려했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천주의 요한의 동료들과 로스 고멜레스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병원 환자와 가난한 이들이었다. 그 후에 소식은 시내 장터와 거리로 재빨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요한이 숨을 거둔 돈 가르시아 데 피사의 가족들이 사는 피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홉 시경에는 피사의 집 앞에 모여든 군중이 누에바 광장 근처까지 꽉 메웠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라나다 시민들 중 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이의 시신을 보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바깥에 모여들고 있던 장례행렬 속에서 자신의 신분에서 어울리는 위치를 확보하려고 밀치고 들어오는 귀족들과 유지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로 밀려나야 했다.

가난한 이들은 광장에서 어슬렁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 곁을 떠나버렸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보살펴준 다지?”

이런 물음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면서 화제의 초점은 점차 살아서 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죽자마자 그리움의 대상이 된 그 인물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운집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열두 해 전에 그라나다에 도착하여 시내 거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책을 사라고 외쳐대던 때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 - 엘비라 성문 - 주변에서 번창하던 시장 안에다 약간의 공간을 확보했다. 그는 성벽을 뒷벽으로 삼고 타르를 칠한 방수천을 위에 씌워서 아담한 서적 가판대를 만들고, 비교적 큰 책들은 뒷벽에 붙여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책을 팔았다.

그의 말투에는 어린 시절의 포르투갈 억양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포르투갈 사람”이라 불렀다.

그는 그라나다에 오기 전에 지브롤터 인근 시골을 돌아다니며 책을 파는 행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라나다에 온 후로 몇 해 동안 자신이 세운 병원 내의 부엌이나 우물가에서 곧잘 대화를 나누며, 신상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았고, 덕분에 사람들은 그가 자기네와 함께 생

활하기 이전에 거쳤던 인생여정을 조각조각 뜯어 맞출 수 있었다.

탄생과 유아기

요한은 1495년에 포르투갈의 몬테모로노바에 살던 안드레아 시다데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그에게 호아오(João, 요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외아들답게 정성스럽게 키웠다. 이 가정은 중산층이었고, 따라서 어린 요한은 결국 집안 사업 - 농작물 판매상 - 을 물려받아 편안하면서도 평범한 삶을 살아갈 운명처럼 보였다. 몬테모로노바는 포르투갈의 비옥한 곡창지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시다데 일가는 초록 거리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요한의 운명은 한 사건으로 진로가 바뀌는데, 이 사건은 결국 시다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요한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어떤 성직자가 그를 시다데 집안에서 데리고 나와 국경 너머 스페인에 있는 페르난도 알바레스 데 오로베사 백작의 영지까지 대략 300킬로를 여행하여 백작을 섬기고 있는 측근인사 돈 프란치스코 데 에루즈에게 키우도록 맡겼다.

그라나다시민들이 천주의 요한이야기 중, 이 부분을 거론할 때, 사실을 약간 변형시킨 점은 심분 이해할 수 있다. 시다데는 유대 혈통을 시사하는 성씨였다. 이베리아반도에서 16세기에 이루어졌던 유대인들의 (심지어는 이미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유대인개종자로 알려진 이들까지 포함하여) “이교도 청소” 과정에서, 어린 이들은 신앙 속에서 온전하게 키워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주변 환경에서 빼내어 “착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때때로 맡겨지곤 했다.

성 찰

나의 하루 일과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과정에 내 마음을 다해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뒤 돌아보고, 천주의 성 요한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봅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바쁜 하루를 위한 기도

독 서

천주의 성 요한의 어린 시절과 사춘기

또랄바 데 오로베사에 살고 있는 돈 프란치스코 에루즈는 자기 집에도 요한이 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요한은 사춘기가 되자 모두들 “엘 마요랄”(두목)이라 부르던 한 목양감독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목동으로 일하게 되었다. 요한은 “엘 마요랄”에게서 지도를 받고 상술을 배우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한 사람의 목자로서 성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한은 목양감독관의 오른팔로서 백작의 양떼들을 관리하는 제법 만만치 않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양을 중심으로 하는 낙농업은 16세기 스페인의 생활에서 핵심 부문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세계에서 식민지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털과 양고기의 생산은 스페인에서 부와 권력을 받쳐주는 기반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양떼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영예로운 목자 조합회”라는 이름의 전국 조직으로 뭉쳐 있었다. 이 조합은 그 명칭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힘과 명성을 지닌 조직이었다. 이는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이었고, 오로베사의 공작은 바로 이 조직의 일원이었다.

성년 초기

1523년에 스페인황제 카를로 5세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양측 군대는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푸엔타라비아에서 접전에 들어갔다. 오로베사의 백작(즉 프란치스코 알바레스 데 톨레도 이 파체코)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에서 자기 영지의 사람들 한 무리를 무장시켜 전투에 참가하도록 내보냈다. 돈 프란치스코 데 에루즈의 말아들 돈 후안 에루즈는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 이 파견대를 통솔하게 되었고, 이제는 족히 이십대에 들어선 요한도 이 부대에 편입되어 모험심에 설레며 전쟁터로 떠나갔다.

첫 번째 원정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16세기 보병들이 흔히 하듯이 소형무기로는 석궁과 활강총을 사용했고, 적의 성채들에는 대포로 맞섰다. 사정거리가 더 긴 머스켓총이 당시 사용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요한과 동료들 눈에는 이번 전쟁의 기술수준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리라. 사실 줄곧 시골에서 살아온 요한은 그저 보통 활보다 기술이 덜 필요하고 당기는 힘도 덜 드는 석궁이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도였을 것이다. 당시에 사용되던 여러 종류의 화승총들은 경험이 좀 있는 병사들에게나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요한이 보초를 서고 군마에게 먹일 마초를 징발하는 임무에 종사했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고 있다.

후엔테라비아에서 겪은 두 가지 사건이 요한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 사건은 요한으로 하여금 덧없고, 쉽게 무너지기 쉬운 인생의 본질을 대면하게 해준 것이다.

그중 한 사건은 요한이 프랑스 국경 근처에서 마초징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에 말 등에서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그는 떨어진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그러다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자신이 적의 손에 잡혀 죽을지도 모를 심각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와 절망 가운데 이 위험에서 빠져나갈 힘을 달라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점차 머리가 맑아지자 처음에는 기어가다가 비틀비틀 걸어서 아군의 진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그는 남은여생 내내 자신이 구출된 것은 마리아의 중재 덕분으로 여겼다.

두 번째 사건은 그의 생명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요한은 병영에서 프랑스인들로부터 빼앗은 노획물들을 지키는 야간보초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물건을 슬쩍 빼내가는 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요한은 최소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에게 당한 경우로, 그가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 지켜야 할 물건들이 도둑을 맞은 것이다.

요한의 직속상관은 이 도난사건에 분개한 나머지 전시에 부여되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보초병으로 요한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요한이 교수대에 올라서서 목에 올라미를 걸고 있을 때, 다른 장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요한이 교수형에 처하게 된 전후사정을 알아낸 그는 판결을 취하하도록 요구했다. 그 장교는 그만한 권한이 있었던 까닭에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덕분에 요한은 처형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즉시 소속 부대에서 쫓겨나 귀가조치를 당하는 “불명에 제대자” 신세가 되었다.

이리하여 요한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로베사로 돌아와 그가 아는 유일한 일인 양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두 번째 원정

1532년에 카를로 5세는 또 다시 요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 이번은 오스만제국의 중앙유럽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원정으로, 당시에 술탄 술티만 2세가 이끄는 터키군대는 이미 비엔나 외곽까지 밀려들어와 있었다. 이때 프란치스코 알바레스 백작은 자신이 섬기는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 직접 오로베사에서 모집한 부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달려갔다.

요한은 백작이 새로 원정군을 모은다는 사실을 알자, 목자노릇에 싫증이 났든 아니면 앞서 후엔테라비아에서 잃었던 명성을 되찾고 싶었든지 간에 “백작의 수행원 틈에 끼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겼다.”

요한은 또 다시 전쟁터로 나갔지만, 이번에는 보병이 아닌 백작의 사령부에서 시종을 드는 병사로 참전했다.

이 두 번째 군사작전에서 요한은 주군 휘하의 추종자들 틈에서 탈 없이 지내면서 어떠한 사고도 당하지 않았고, 덕분에 원정대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투는 터키인들이 후퇴함으로써 성공리에 끝이 났고, 요한은 황제가 보무당당하게 비엔나로 입성하는 광경을 지켜본 다음 백작과 함께 배편으로 스페인에 돌아와 북서부 항구 라 코루나에 상륙했다.

오로빠사로 돌아오다

요한은 곧장 오로빠사로 돌아가기보다는 포르투갈에 들러, 어린 시절 초반을 보냈던 고향부터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백작의 승낙을 받고 몬테모로노바를 향해 남쪽으로 대략 550킬로미터쯤을 갔다.

그곳에 당도한 그는 부모를 찾아보았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던 연로한 삼촌에게서 양친 모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어머니는 요한이 갑자기 스페인으로 떠나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들어가 남은여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요한은 부모가 겪은 일에 몹시 상심하여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으로서 마땅히 하느님을 섬기며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고자, 자기 아버지처럼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삼촌과 기약 없이 헤어져야 했고, 그 길로 어린 시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고향마을을 또 다시 떠나갔다.

성 찰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당시 천주의 성 요한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상황들을 회상해 보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신세계

독 서

세빌라 지역으로

요한은 스페인으로 향했지만, 오로베사로는 가지 않고, 대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안달루시아 지방의 수도 세빌라로 갔다.

몬테모로노바에서 세빌라까지 250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동안, 요한은 틈틈이 일을 해주고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했다. 세빌라가 가까워질 때쯤 그는 다른 여행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신세계를 눈앞에 그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곳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 바로 세빌라였다. 당시에 모험심 강한 포르투갈사람들과 스페인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요한도 인도나 아메리카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그가 인도나 아메리카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필경 선원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기능공 기술을 지니지 못한 그로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리라. 뱃삿을 마련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그는 세빌라 근처에 사는 도나 레오노르 데 주니하라는 이름의 귀족부인 영지에서 여러 달 동안 목자로 취직하여 일을 했다. 그가 후에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귀부인을 위해 일하는 동안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든 인간들의 필요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가축들은 애지중지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북아프리카로

세빌라 지역에서 도나 레오노르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이단 심문소에서는 신세계의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전하도록 말기기에 유대인 개종자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들이 식민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빌라에다 검문소를 설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게 되었다.

하지만 포르투갈 국왕 요한 3세는 1536년에야 이 이단 심문소를 도입했고, 따라서 유대인개종자였던 요한은 그때까지 또는 이후로도 얼마 동안은 포르투갈 식민지에 갈 수 있었다. 실제로 요한은 세빌라를 떠나 스페인 남부해안에 있는 지브롤터까지 150킬로미터를 내려갔다. 그것은 지브롤터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포르투갈 식민지 세우타로 가기 위함이었다.

포르투갈은 16세기 초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식민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농장과 무역으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인도와 브라질을 선호했다. 그들은 세우타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이유는 불모의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이 본래 해적들로부터 포르투갈의 영해와 해안을 지키기 위한 기지로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또한 범죄자들의 유형지이기도 했다.

요한은 지브롤터에서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네 딸들을 데리고 세우타로 건너갈

채비를 하고 있던 포르투갈의 기사 돈 루이스 데 알메이다를 만났다. 돈 루이스는 잘못을 저지른 탓에 포르투갈 국왕에게 처벌을 받아 일체의 재산을 포르투갈에 놓아두고 가장 형편없는 식민지로 가서 기약 없이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요한은 필경 자유로이 여행도 하고 세우따에서 호구지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 돈 루이스의 시중을 들기로 하고 알메이다 가족을 따라 세우따로 건너갔다.

세우따

요한의 새 주인은 요한에게 좋은 대우와 넉넉한 보수를 약속해주었다. 하지만 돈 루이스 데 알메이다와 그의 가족이 일단 세우따에 정착하면서 준비해간 얼마 안되는 돈과 물품들은 금방 바닥이 났고, 그 후부터는 줄곧 가난에 찌들리게 되었다. 돈 루이스는 상황이 그런데다, 가족들 모두가 병들어 눕게 되자 요한에게 시중의 의무를 넘어서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마침 세우따에서는 해적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세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요한은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 돈 루이스의 식구들이 연명해갈 수 있는 돈을 벌어야 했다. 왕실에서 추진하는 이 공사는 원래 죄수들을 노역에 동원하여 1536년에서 1538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새는 황급하게 완공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기술이 없는 임시 일용노동자들을 써야 할 일거리도 생겼다.

요한은 아침마다 요새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줄지어 모인 사람들 틈에 끼었고, 저녁마다 받아온 임금을 돈 루이스 손에 넘겨주어 그들 모두가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탱해나갈 만큼은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북아프리카의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잔혹한 감독들 밑에서 항구의 성벽을 쌓는 일은 몹시 힘들었고, 채용된 일꾼들은 피고용인이라기보다는 죄수와 엇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채찍질은 걸핏하면 사슬에 매인 죄수들의 등짝을 내리치듯이 자유인들의 등짝에도 내리꽂히곤 했다.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너무나 모진 학대에 견디다 못해 때로는 모든 것을 때려치우자는 말들을 하곤 했다. 하지만 유형지에 발을 들여놓은 그들은 사실상 거지들이나 같아, 본토로 돌아가는 선박에 올라타려고 해도 뱃삿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 몇몇은 절망한 나머지 근처에 있는 이슬람 도시 티투안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 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하기 마련이었다.

요한은 친구들 가운데 한명이 도망가서 개종해버리자, 스스로를 자책하며 절망감에 쌓여 중얼거렸다. *“나의 이 형제가 일에 따르는 약간의 고통을 감내하기 싫다고 어머니 성 교회의 몸체에서 떨어져나가 자기 신앙의 진리를 부정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으니, 내가 장차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한단 말인가?”*

요한의 감정적 반응은 언제나 걱정적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도망친 친구를 뒤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였다.

이 같은 감정적 동요 속에서 요한은 한 프란치스코회 수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

회가 있었는데, 이 수도자는 요한이 처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요한의 삶과 신앙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서 그에게 당장 세우따를 떠나 스페인으로 돌아가도록 충고했다.

요한은 그의 충고에 따라 데 알메이다 집안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지브롤터로 돌아왔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은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장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로움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천주의 성 요한의 다양한 경험에 함께 경험해봅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내가 머무를 곳

독 서

책을 파는 행상

요한은 몬테모로노바와 세우따에서 겪은 일들 덕분에 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브롤터로 돌아온 초기 며칠 동안은 여러 성당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강렬해졌지만,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 요한이 하루는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책들과 성화들을 진열해두고 파는 광경을 목격했다. 마침 그에게는 작은 액수나마 돈이 있었기에 이 돈으로 몇 권의 책과 성화들을 사서 안달루시아 지방의 촌락들과 성채들을 돌아다니며 이윤을 조금만 남기고 팔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던 요한은 당장에 떠돌이 책장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은 알고 보니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여행하기를 좋아했고 또한 사람들을 좋아한 그가 이제는 인생길 어디에서나 사람들과 부단히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중 몇 사람에게는 살아가는데 유익한 책을 파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앙서적에는 금방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약간의 일반서적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앙서적판매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좀 더 알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에, 이 일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두신 하느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이제 요한은 나이가 사십대에 들어서 있었으니, 계절로 치면 여름에서 가을을 거쳐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책)보따리를 짊어지고 줄곧 이곳저곳으로 떠돌며 언덕을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가는 일이 부담스러워지자 그라나다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째서 그라나다였던가? 요한은 스페인이 그리스도교 국가로 재통일되는 과정을 줄곧 지켜보아온 이 도시를 격찬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음에 틀림없다.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요한이 그라나다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다. 후에 그라나다에 있던 우리 수도회 장상 중 한분이 요한의 이야기에다 덧붙인 전설에 따르면, 요한이 떠돌이 책장사를 하던 중 하루는 지브롤터에서 북쪽으로 50킬로미터쯤 떨어진 가우진 부근에 있는 작은 냇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손에 석류(스페인어로 그라나다)를 든 어린 소년이 냇가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다. “천주의 요한이여, 그라나다가 당신의 십자가가 될 것이며, 당신은 이를 통해 영광에 찬 예수를 뵈게 될 것입니다.”

화가들이 천주의 요한의 성화에서 재현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가 그라나다로 가

기로 마음먹은 결단, 즉 그의 삶과 미래를 확실하게 전환시키는 결단을 표상하고 있다. 만일 그가 안달루시아의 다른 도시나 스페인 내의 여타 장소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를 세빌라의 천주의 성 요한 또는 코르도바의 천주의 성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도시 역시 그를 그라나다가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였다면 말이다.

그라나다

요한이 들어선 그라나다는 “긴장되고 소란스럽고 위험한 도시였다. 세빌라와 카디스로 가서 새로 발견된 남북 아메리카 식민지로 건너가려는 여행자들이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 물결처럼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길거리마다 장사꾼들과 모험가들, 거지들, 매춘부들, 좀도둑들이 득실거렸다. 당시는 스페인이 무어인들에게서 그라나다를 빼앗은 지가 불과 몇 해도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요한이 들어선 그라나다는 격변기를 거쳐 가는 중이었다. 이 도시에는 주민이 대략 20만에 달하고 있었다. 그라나다는 초창기부터 이슬람 문화권 도시로서 생활과 건물양식에는 수많은 분수와 수도들을 비롯하여 이슬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슬람사원들은 성당이나 왕립병원 또는 왕립대학 같은 여타의 시설들로 바뀌었는데, 이는 왕실에서 이 도시를 되도록 빨리 그리스도교로 교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런 주도적인 조치들 가운데 일부는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왕립병원도 그런 경우들 중 하나였다. 축조공사는 1504년에 시작했지만 공사가 더디고 산발적이어서 1526년에 가서야 첫 환자들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병원의 이용도는 극히 제한되어, 한 해에 두 차례(봄과 가을에) 매독환자 30명가량을 받는데 그쳤다. 그 기간 또한 그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던 수는 제가 떨어질 때까지 뿐이었는데, 이것은 얼마 못 가서 금방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병원은 한 해에 상당 기간 동안은 텅 비어 있곤 하다가, 1535년에 (천주의 요한이 무대에 등장하기 삼 년 전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 병원 건물 뒤편 가운데 한 곳을 할애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여 치료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그라나다 사람들은 천주의 요한의 인생여정 중 전반부는 요한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반부는 - 요한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한 일들은 - 직접 보고 알았다. 그들이 줄곧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요한은 낯선 이방인에서 도시의 신출내기, 미친 사람으로, 별난 기인으로, 좋은 친구로, 성인으로 (그렇다, 그들은 드디어 그를 이렇게 부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모되어갔던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요한이 그라나다에 도착한 후 짧은 시일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은 수해동안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으며, 일찍이 그가 속했던 장소들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정착지가 될 그라나다에 도착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정에 자신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의 마음에 동정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우리들의 사명이 확고한 느낌을 갖도록 인식하고, 인생에서 의미와 소속감을 찾아 여전히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천주의 성 요한의 환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두 분의 요한

독 서

회심

이 도시에서 도는 소문은 무엇이든 책 판매대에 앉아 있던 요한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소문은 저명한 신학자요 영성지도자인 스승 요한 데 아빌라가 성 세바스찬 축일에 거행되는 장엄한 예식 때 특별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그라나다시는 순교자들의 암자에서 예식을 거행하였다.” 가톨릭 군주 페르디난도와 이사벨이 세운 이 암자는 무어인들이 수 세기에 걸쳐 그라나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념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알함브라 - 무어인의 요새들과 궁전들과 정원들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 -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빌라의 요한 신부는 그라나다에서 두 해째 살고 있었으며, 돈 가스팔 데 아발로스 대주교의 좋은 친구로서 그가 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 시절에 그라나다에는 데 아빌라의 설교와 가르침에 이끌려 그의 주위에 몰려든 제자와 사제와 평신도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그가 수행하는 많은 사목들을 도왔으며, 개중에는 “어시장회(會)”라 부를 수 있는 모임을 조직하여 시내 중심지역에 모여 사는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자선사업을 벌이는 이들도 있었다.

정월 20일, 성 세바스찬 축일이 밝아오자, 요한은 다른 *그라나다시민들* 무리에 섞여서 엘비라 거리로 내려가 누에바 광장을 지난 다음 ‘로스 고멜레스 언덕’으로 올라가 알함브라로 향했다. 순교자들의 암자에 당도한 요한은 그곳에 딸려 있는 작은 성당에 들어갔다가 설교가 이루어질 바깥 장소로 나왔다. 그리고 설교자가 올라설 단상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윽고 요한 신부가 단상으로 올라와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엄위하신 위엄을 벗어던지고 내려와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함께 나누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비하신 주님께 자신의 육체적,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스스로를 내맡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강조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 굶주리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미움 받는 이들, 멸시받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부자들, 가진 자들, 높은 대접을 받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위안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설교자의 말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실로 엄청나, 스스로조차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대단했다. 그는 별안간 복음의 진가를 터득했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얻은 성공이 하느님께 총애 받고 있다는 표지가 아니며, 사회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

들이 하느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던 것이다. 설교는 요한에게 이 같은 깨달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아울러 그에게 삶에 대한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도록 도전해왔다.

요한은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설교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요한은 무리에서 빠져 나와 줄달음치며 목청껏 소리쳐 하느님의 자비를 탄원했다. 하느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깨달으면서, 그는 자기를 벌한다는 뜻에서 땅바닥에 나뒹굴며 성당 벽에다 머리를 마구 짚어댔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요한은 그런 생각을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이 별안간 벌떡 일어나더니 시내를 향해 언덕을 쓴살같이 달려 내려갔다. 성당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던 청년들 몇 명이 그 뒤를 쫓아갔다.

암자 주위에서 북적대는 사람들보다는 미쳐버린 책장수가 훨씬 큰 흥밋거리라고 여긴 그들은 그의 숙소까지 요한을 뒤쫓아 가며 “미친 놈, 미친 놈.” 하고 고향을 질러댔다.

이렇게 소리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뒤를 따라오는 사이에, 요한은 자신이 잠도 자고 물건들을 쌓아두기도 했던 숙소에 당도했다. 그리고 안으로 달려 들어가 연애 소설들과 속세를 주제로 다룬 책들을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앙과 성인들의 삶을 다룬 책들은 따로 골라 찢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끝으로 지독하게 추운 그라나다의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셔츠와 바지만을 남기고 입은 옷들을 모조리 벗어던졌다.

요한은 그런 차림으로 다시 길거리로 나와 자신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싶노라고 소리쳤다. 일부 군중은 요한이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는지 보려고 뒤를 따랐다. 요한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중심가 성당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 하느님, 하느님께 더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온 이 큰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행동을 보며 깔깔거린 것은 아니었다. 착한 사람들 (요한 데 아빌라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이 요한을 진정시키고 요한 데 아빌라 신부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요한은 조용하게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목적지에 당도하자 사제에게 요한이 그의 설교를 듣고 달려 나간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 데 아빌라 신부는 그를 딴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한참 동안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신처럼 유대인개종자 집안 출신인 아빌라에게 지금껏 살아온 역정을 털어놓았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시작되어 평생토록 이어지는 계기를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리라. 아빌라는 차림새가 형편없어 보이는 이 참회자에게 너무나 크게 감명을 받은 나머지, 헤어지기에 앞서 그를 영적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적 성장을 지도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이 만남의 성격과 결과는 천주의 요한의 “광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그날 그라나다에서 현장을 목격했던 무심한 구경꾼들은 아빌라의 설교에 보인 요한의 극적인 반응을 보면서 그가 미쳤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요한이 그 같은 인상을 받도록 행동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통찰력 있고 노련한 영성생활의 대가(大家)는 오히려 요한이 지극히 분별 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영성지도를 해줄 만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빌라가 요한에게 들려준 말들은 요한에게 힘을 주어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분과의 대화는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과 오만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화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는 정말 우연하게도 비웃음과 조롱을 자초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참회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에서 그는 정말로 미친 사람 취급을 - 크나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대접받기보다는 당시에 경멸받고 조롱당하던 그런 사람 취급을 - 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근처 비바람블라 광장으로 돌아가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진창 속을 뒹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땅바닥의 더러운 오물을 입에다 집어넣으며 기억나는 대로 자신이 저지른 온갖 죄들을 큰소리로 외쳐댔다. “나는 내 하느님께 죄를 지은 아주 몹쓸 죄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거슬러 이런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저지른 나 같은 배신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고 학대받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구정물 투성인 진창과 수렁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요한은 이런 일을 사흘 동안이나 계속했다. 굶주림과 추위와 수면부족으로 정신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의 행동과 용모를 보면서 많은 그라나다시민들은 어떤 미친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굳게 믿었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들을 겪을 적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따뜻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업무에 지쳐있을 때 그들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천주의 성 요한의 다양한 경험에 함께 경험해봅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왕립 병원

독 서

입원

천주의 요한 시대에 정신질환은 하나의 신비였다. 하지만 이 병을 그라나다 모든 사람이 겁나고 지독스런 것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거룩한 광인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집단을 수용할 줄 알았고, 그라나다에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자들로 보는 강한 이슬람문화의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어쨌거나 천주의 요한의 행실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둘이 그래봤자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구해내어 왕립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지난 몇 해 동안 병원 관계자 한사람의 서명만 있으면 시내의 미친 사람들을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던 곳이다. 그들은 병원 감독에게 요한을 맡기며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마련해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병원 감독은 이미 요한이 “광기”를 부리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병자를 조용한 장소에다 배치해주는 대신에 곧바로 감시자들에게 넘겨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시에 널리 행해지던 일반적인 정신병 치료법은 채찍질을 하고 찬물을 흠뻑 끼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치료법의 목적은 병자에게 심한 고통을 가해서 병자가 그 충격으로 광기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곧바로 요한을 발가벗기고 뽕뽕 묶은 다음 두 겹으로 꼬아진 채찍으로 후려쳤다.

요한 자신은 참회의 일환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는 - 특히 이런 조치가 거의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한 까닭에 -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동료 환자들을 대신하여 감시자들을 꾸짖으며, 치료한답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토록 희희낙락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을 씻기고 먹여주고 인간답게 대접해주는 편이 훨씬 큰 치료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올 가톨릭 군주 페르디난도와 이사벨이 지금껏 병원에 기금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도 가난한 이들이 아픈 몸을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 사이에 요한 데 아빌라 신부는 요한이 그 같은 행동을 한 이유와 동기를 아는 까닭에 제자 한 사람을 보내며 그를 찾아가서 지금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다: “...그대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그대가 세상에 나올 때를 대비하여 자신을 단련하는 일에 착수하시라...” 이전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는 마당에 영성지도자가 자신을 기

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요한은 입원하여 겪은 부정적인 체험들을 지난날 자신을 못된 길로 이끌었던 육신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여겼다. 그는 감시자들 손에 ‘치료’를 받으면서 곧잘 그들에게 말하곤 했다. *“형제들이여, 나의 온갖 사악함을 부추겨온 밑뿌리요, 선한 것들의 원수인 이 변덕스런 육신을 별주시오 -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만큼, 이 육체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요.”*

요한은 병원에 있는 동안 얻은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그 시절에 곧잘 바치곤 했던 기도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시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들여서 제가 바라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병원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서 요한은 치유사목과 전체적인 보건의료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제가 바라는 대로 그들을 섬기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망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사람이 되어 그 고통을 함께 체험하신 하느님과 보다 가까워지도록 이 고통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었다.

요한은 자신의 기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왕립병원에서 나갈 필요가 있었으며, 아울러 자신이 분별 있는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풀려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미친” 행동을 중단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기 시작했다. 감시자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자기네 치료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축하면서 그에게 채웠던 족쇄를 풀어주어 병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요한은 곧바로 병동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동료 환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

요한은 어디서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늘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그러는 동안 병원에서 일종의 무보수 보조간호사 노릇을 하며 몇 달을 더 보냈다. 요한이 그렇게 지내고 있던 1539년 5월 16일 오후에 카를로 5세의 부인인 이사벨 황후의 장례행렬이 톨레도에서 그라나다에 도착했다. 그녀의 시신은 왕실 성당에 안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요한 데 아빌라 신부도 황후의 장례식 때문에 그라나다에 왔고, 5월 26일에 대성당에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요한을 만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병원 원장 미구엘 무뇨즈 신부에게 퇴원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라고 당부했다. 요한은 그 말대로 했고, 그리하여 5월 말에 퇴원증명서를 손에 들고, 병원에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인 초라한 옷차림에 맨머리, 맨발로 감시자들과 환자들의 축원을 받으며 병원을 떠나 영적 아버지가 있는 베자로 찾아갔다. 베자는 그라나다에서 100킬로미터가 약간 더 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소도시로, 아빌라는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그곳에 가 있었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은 이방인의 추방 속에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가 당신 눈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버려지고, 멀어지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우리도 천주의 성 요한의 방법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장소를 떠나 새로운 나의 일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 봅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부르심

독 서

과달루페

요한 데 아빌라 신부는 방문차 베자에서 그라나다로 올 때면 시내 어시장을 중심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제자들과 계속 접촉했다. 그는 최근에 간호와 치료를 경험한 덕분에 병자들의 필요에 남달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한을 장차 이 그룹의 일원이 될 사람으로 보았다. 아빌라는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요한이 그라나다로 돌아가기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영성적·기술적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해나갔다. 덕분에 요한은 베자에서 유월부터 십일월까지 여러 달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빌라가 대학을 세우는 예비단계로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던 곳이었다.

아빌라가 요한을 위해 준비한 계획에 따르면, 요한이 베자에 있는 동안 영성과 학문을 두루 익히고 난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 스페인 서부 중심지대 엑스트레마두라에 있는 과달루페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 요한은 과달루페의 성모 성소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영성을 심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었다. 우연히도 과달루페 인근에는 요한이 간호와 의술을 익힐 수 있는 훌륭한 병원들이 많이 있었다.

당시 과달루페에는 열한 개의 병원이 있었다 - 그중 네 곳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에 해당했고, 나머지 일곱 곳은 전문병원과 순례자 숙소가 결합된 복합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과달루페는 병원들과 부설 의술학교를 가진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의료 복합단지들 가운데 하나였다. 비록 교회법에는 어긋났지만, 과달루페 성소와 여기에 관련된 병원들을 책임지고 있던 예로니모 수도회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로부터 허락을 얻어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의 기능을 훈련하고 가르쳤다.

요한은 1539년 11월 한 달 내내 과달루페까지 300킬로미터를 걸어서 갔다. 날씨는 추웠지만 옷차림이 따라주지 못했다. 길은 험한데 그는 맨발이었다.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여행하는 동안 구걸하거나 일을 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떠돌아다닐 때의 경험을 살려 그는 길을 가면서 땀나뭇잎 한 다발 모아두었다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내주기도 하였다. 혹시 밤을 지새우기 위해 도착한 곳에 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곧장 그곳으로 가서 땀나뭇잎을 넘겨주며 음식과 잠자리를 부탁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지극히 소박한 그는 그렇게 얻은 음식과 잠자리에 늘 만족해했다.

과달루페에 당도한 요한은 곧장 작은 갈색 성모 마리아상(높이 59센티미터)을 찾아가 그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시내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가서 숙박을

청했다.

자신의 숙식을 위해 언제라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다가, 버림받은 이들을 보살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던 요한이기에, 이내 곧 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는 예로니모 수도회가 운영하는 과달루페 병원에서, 병원 지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수준의 의료보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아주 훌륭하게 정비된 그곳 병원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다: *훌륭한 음식, 안락하고 깨끗한 침상, 환자들을 잘 아는 훌륭한 내과의사, 훌륭한 관리자와 인정어린 간호인 - 이 모두는 고통의 악을 선익한 어떤 것으로 변화 시켜 주리라.*

과달루페에서 일정 기간을 지낸 요한은 자신과 요한 데 아빌라 신부가 계획하고 있는 임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자 베자로 돌아와 영적 아버지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했다. 그런 다음 그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곧장 그라나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성 찰

자존감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그리고 그 좋던 평판이 먼지로 화해 버렸을 때, 천주의 성 요한은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 두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서 어려움들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결코 저희를 떠나거나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새기도록 하소서. 당신의 백성이 어둠 속에서 헤매 일 때 당신의 빛을 가져올 힘을 주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장애로 가지고 살고 있는 대상자들과 장애를 지닌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픈 상처가 많은 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베풀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천주의 성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는 우리들의 대상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통해 천주의 성 요한을 닮을 수 있기를 청해봅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요한의 꿈

독 서

그라나다로 돌아오다

요한이 그라나다에 돌아온 때는 동이 트면서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는 성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미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아직 아침을 먹지 않은 그는 땔나무를 해다 팔기 위해 사크로 몬테 기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시내로 들어가는 도중에 자신을 “미치광이”로 기억하고 있는 곳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보 취급을 받게 되리라는 불안이 그를 엄습하면서, 도저히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때마침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듯싶은 가난한 여자가 눈에 띄자, 그는 나뭇단을 그녀에게 주고서 고픈 배를 안고 다시 산기슭으로 올라가 온종일 거기서 지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몸서리를 쳤다.

이튿날 아침, 요한은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강해져야지 마음먹고 일찍 일어나서 미사에 참례하고 다시 땔나무 한 단을 모았다. 그런 다음에 시내로 들어가는데, 또 다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 앞으로 줄곧 그라나다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은 그는 스스로를 호되게 질책하며 말했다.

“고집쟁이 양반아, 나뭇단을 들고 그라나다에 들어가면 거북스럽고 체면이 구겨진다고 해서 싫다 이거지. 자, 그런 체면이라면 벌써 잃어버렸으니 얼른 나뭇단이 나 지고 중앙광장으로 가서 너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도록 얼굴을 내밀려무나. 그러면 너의 허영심과 교만이 사라질 게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은 요한이 시내를 통과하여 중앙광장으로 들어가니, 모두들 금방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듯이, 몇몇 사람들은 그를 놀리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의 수척해진 용모와 누더기 옷차림은 궁상맞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온갖 조소와 야유를 선선히 받아주었고, 그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말장난이나 수수께끼 같은 말로 사람 좋게 응수하곤 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내게서 발견하고 있는 것은 빌림바오 놀이와 같으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노 젓는 배 세 척과 돛단배 한 척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맞힐 수 없는 것과 같소.”* 요한이 여기에서 말한 것은 술래가 눈을 가린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이 엉터리 노래로 불러주는 숫자들은 무시한 채, 또 다른 아이들이 배 흉내를 내며 앞을 지나가면 그 배들의 숫자를 알아맞히는 포르투갈 어린이들의 수수께끼 놀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는 외모로 판단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뜻이 담겨 있음을 그라나다 사람들에게 어린이 놀이를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라나다에서의 노숙

자신을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 묵인은 해준 그라나다의 길거리에서, 요한은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땀나무를 해다 파는 일로 해결해나갔다. 그는 거처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고, 기온이 온화하다 해도 “아무데서나 잠”을 자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요한 데 아빌라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지시한 바 있었다. “그라나다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내가 그대에게 일러준 고백사제를 찾아가게. 그분은 그대의 영성지도자가 되어줄 것인즉, 무슨 일이든 중요한 일에 착수할 때는 먼저 그분과 상의해야 할 것이네.” 요한은 자신의 고백사제 도밍고 알바르도 신부(그라나다에 있는 “아빌라 서클”의 또 다른 일원)를 처음 찾아보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도 그의 추천 덕분이겠지만, 그라나다의 저명인사 - 돈 미구엘 아비즈 베네가스 - 로부터 밤을 보낼 거처를 제공받았다.

성 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라나다 시민들 앞에 누더기 복장으로 다시 나타난 천주의 성 요한은 어떤 심정 이였을까요?

체면, 허영심, 교만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라나다 시민들에게서 환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하느님의 사업

독 서

베네가스의 집

돈 미구엘은 그라나다를 다스리던 마지막 무어인 왕 보압딜(원래는 아부 압달라)의 손자로서 존경과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가족이 사는 집은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돈 미구엘과 요한이 어떻게 해서 서로를 알게 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돈 미구엘이 아빌라의 “서클” 회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밍고 알바르도 신부가 그의 고백사제였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돈 미구엘은 요한에게 자기 집 대문간 안에서 밤을 지내도 좋다고 말했다. 덕분에 요한에게는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생겼고, 그는 이 점을 고마워했다.

요한은 이제 빈곤의 세계를 떠돌며 자신과는 달리 잠잘 곳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자다가 야경꾼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인 병들고 허약한 이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거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여겼다.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무슨 일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동안이라도 자신이 얻은 행운을 가장 허약하고 병이 깊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그들을 베네가스 저택 대문간으로 데리고 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얼마 못가서 갑작스럽게 무산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돈 미구엘이 늦게 귀가했다가 요한이 데려온 사람들이 대문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바람에 타고 있던 말을 몰고 그들 사이를 뚫고 안채로 들어가기에 아예 불가능했다. 그럴지 않아도 집안사람들에게서 불평을 듣고 있던 돈 미구엘은 요한의 선한 뜻이 베네가스 저택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이번 기회에 그것과 방향이 맞는 좀 더 알맞은 장소를 시내에서 찾아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어시장

돈 미구엘은 아빌라의 “어시장회”가 아직도 밤이면 추위를 피해 달한 시장 가게들의 진열대나 작업대 아래서 또는 그 당시 공사 중이던 대성당 발판 밑에서 웅크리고 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안 로아르테가 이끌고 있던 이 모임은 어시장 구역에다 쉼터 하나를 마련해두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모조리 이곳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별 여인숙 뒤편에 있는 건물에 딸린 부지에서 한 달 동안 이 일을 힘껏 해냈다. 그들의 이런 착안은 “몹시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하여*

어시장 부근의 거리에다 더 큰 집 하나를 또 마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요한 데 아빌라 신부는 (아마 돈 미구엘의 요청에 따라) 요한에게 로아르데 쉼터로 옮겨가도록 말하였다. 거기라면 요한 자신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시내를 돌아다니다 마주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는 곳이니, 거기에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었다.

루치나 거리

이 쉼터는 루치나 거리 혹은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빌라의 “어시장 회”의 다른 회원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은 어떤 일에도 매여 있지 않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쉼터를 책임 맡게 되었다. 즉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구호품을 모아서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쉼터는 금방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개중에는 너무 병이 심해서 밤을 보내고 나서도 이튿날 아침에 쉼터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천주의 요한은 요한 데 아빌라 신부의 충고에 따라 더 큰 건물을 세내게 되었다.

요한은 맞아들인 사람들이 깔고 덮고 자도록 헌 담요와 꼭 필요한 돗자리 몇 개를 사들였다. 시내에 사는 인정 많은 여인들도 요한에게 침대 몇 개를 내주어 병자들이 좀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고, 덕분에 요한이 운영하는 피난처는 한 차원 높은 시설을 갖추면서 일종의 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요한 시대에 병원은 대단히 폭넓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병원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집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곳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계층의 사람을 다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구자, 저능아, 나병환자, 병어리, 미친 사람, 중풍환자,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과 많은 어린이들도 들어와 있다.”

성 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충실함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혹은 잔인하게 다루어지는 감금의 장소들;

- 과거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 심리적 장벽들;

- 우리를 속좁고 잔인하게 만드는 편견의 감옥들;

- 불구, 질병 그리고 정신적 아픔에 의하여 우리에게 씌워지는 속박 등등

천주의 성 요한은 억압받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정의가 그들을 위하여 있음을 믿고, 배고프고, 굶주리며, 정의를 울부짖으며 살아가는데 있어 최선을 다 했기에 우리는 그 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도움의 손길들

독 서

병 원

사람들은 요한이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거두어 보살피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일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유사 이래로, 특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요한이 병원을 세울 당시에 그라나다에는 이미 14개가량의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왕립병원, 여자들을 위한 자선병원,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 병원, 급성 전염병을 다루는 교구관할 성 안나 병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요한의 시대에는 병원이 일반적으로 20개에서 50개의 병상을 갖추고 특정한 한 종류의 질환에 주력했다. 병원은 설립되기도 하고, 개개인이 하느님께 입은 은덕에 감사하는 뜻으로나 맹세 때문에 기증하기도 하면서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병원을 기증받아 운영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후원자가 해마다 병원에 내는 기부금에서 잉여금을 남겨 자기네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 기증받은 병상의 숫자보다 더 많은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증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천주의 요한은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거절하는 법이 없이 온갖 종류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두루 받아들였다. 그의 목표가 - 운영비를 남겨서 챙기는데 있지 않고 -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돕는데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주목받을 만했고, 시내 전역과 인근 지방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요한이 자기 환자들과 맺은 관계 역시 새로운 것이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은인처럼 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형제로 대했다. 그는 그들과 굳게 결속되어 있었고, 자신의 기호나 편리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다.

사람들은 자기네 도시에 사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거두어 보살피는 요한의功德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상인들은 요한을 믿고 그의 병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외상으로 사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에 이르렀다. 도움의 손길 역시 담요와 흠이불, 옷가지 및 기타 물품들을 요한에게 기증하는 형태로 답지하기 시작했다.

적선 권유

요한이 돕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생계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혹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길거리로 구걸하러 나다녀야 했다. 그러면서 요한은 구걸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는 다른 걸인들처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성당 문간에서 손을 내밀거나 동냥통을 들고 서 있는 대신에, 저녁마다 큼직한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양손에 단지를 하나씩 들고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그는 거리를 지날 때마다 큰소리로 외쳤다. “*형제자매들이여, 자신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지상에서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라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명령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라나다 사람들에게 결코 효험이 없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요한의 호소에 너그러이 응답했다. 그들은 그라나다 시민답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굳건한 자선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그라나다의 칠백년 동안 이슬람 도시로 존재해 왔으며, 이슬람교가 가장 중요한 의무로 내세우는 다섯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너그러운 자선이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의료와 사회보장을 국가가 실제적으로 제도화하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 자선을 요구해오든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여겼다.

요한은 저녁마다 거리로 나가서 돈이나, 조각으로나 덩어리째 주는 빵, 고기, 또는 식사하고 남은 찌꺼기 등 주는 대로 받아왔다.

그는 얻어 모은 것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오면 문안으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소리치며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곤 했다: “*하느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이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가져온 음식들을 따뜻하게 데워서 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식사가 끝나면 요한은 청소하고 집안을 정리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공동우물로 가서 밤에 쓸 맑은 물을 길어왔다. 아빌라의 “어시장회”와 그밖에 사람들이 요한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초창기 시절에 스물네 시간을 이런 일에 투신한 사람은 요한 혼자밖에 없었다.

급사

요한 데 아빌라 신부와 그라나다에 있는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기는 했지만, 일반사람들은 여전히 이 별난 사내에게 의구심을 품거나 적어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이 이단감시소 안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있던 중에, 이 같은 태도를 크게 바꾸어놓은 사건 하나가 벌어졌다. 이곳 안뜰에는 분수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구경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요한을 두고 경멸하는 것에 힘을 얻었는지 급사를 하고 있던 개구쟁이 한명이 요한 뒤로 다가가서 그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요한은 물에 흠뻑 젖은 채 물웅덩이에서 걸어 나왔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화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급사에게 부드럽게 몇 마디를 하고서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자리를 떴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이야기가 삼시간에 시내에 퍼졌다. 그 날 이후로 그라나다 시민들 사이에서 요한에 대한 평판이 꾸준히 좋아져갔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에게도 호스피탤러 가족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나눔의 기쁨을 통해 온정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들과 '한걸음 더' 같이 갑시다.

-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 노출되고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가려주며;
- 체면을 잃은 이들을 존중해 줍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모든 여인들을 위한 축복

독 서

매춘부들

요한의 영성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나자렛 예수의 수난과 죽음에 집중되어 있었다. 요한은 회심한 그 시간부터 자신을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

요한은 그 같은 깨달음의 결과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악을 제거하고 선을 쌓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느꼈다.

요한은 여러 가지 활동에다, 잘해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잘못하면 새삼스럽게 의심을 자초하고 욕먹을 활동 하나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가장 예리하게 감지하곤 하던 금요일만 되면 시내에 있는 사창가들 가운데 한두 군데를 찾아갔다. 그의 목적은 여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서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생활방식을 버리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그가 쓰는 방법은 일단 사창가로 들어가서 여자들 중 한명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봐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는 돈을 내고 조금 더 주겠소. 내가 바라는 건 그저 그대의 방으로 가서 내 말을 두어 마디 들어달라는 것뿐이요.*”

그리고 일단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요한은 여자를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나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십자고상을 내밀 듯이 받쳐 들었다. 그런 다음에 여자의 비행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범한 죄들을 들먹이며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서,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로 끝을 맺었다. 그러면 곧잘 여자는 여기에 감동받고 자신의 악한 생활이 싫어져서 요한과 함께 사창가를 떠나겠다고 나서곤 했다.

쉽게 말은 하지만 쉽게 행동할 수는 없는 여자들도 없지 않았다 - 사창가 포주에게 팔려와 있는 탓에 돈을 변상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여자들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했다. 하지만 여자들의 해방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용납할 수 없었던 요한은 시내에 사는 부유한 귀부인들에게서 필요한 돈을 얻어오거나, 문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끊어주곤 했다.

매춘부에게 정상생활을 되찾게 해주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한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텼다. 이런 여자들 가운데 몇몇은 요한의 병원에서 조력자로 일하며 요한이 데려온 아이들을 보살폈다. 참회생활에 끌리는 다른 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요한이 주선하여 수녀원에 자리를 찾아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요한은 남편감을 찾아내는 한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해주었다. 금요일에 사창가를 찾

아가는 일은 천주의 요한이 평생에 걸쳐 연출하는 기나긴 인생드라마에서 (가장 쉬운) 서막에 불과했다. 요한은 언젠가 구호품을 얻어내기 위해 그라나다 바깥으로 나갔다가 자기 “숙녀들” 열여섯이 한꺼번에 결혼하는 합동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때맞추어 돌아온 일도 있었다.

후작에게 “강도당하다”

요한은 언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자신은 통째로 전부 내줄 수밖에 없노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개인적으로 맹세한 듯 한 말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요한에게 10 두카트를 요구하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요한은 말하자면 액수를 깎아서 5두카트나 7두카트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두카트를 그대로 내주곤 한다는 것이다.

요한의 생애에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그가 우연히 그라나다에 머무르고 있던 타리파의 후작 돈 페드로 엔리케즈를 찾아가 일에 필요한 돈을 부탁하던 날 밤에 있었던 일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요한이 돈 페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는 몇몇 친구들과 노름을 하고 있었다. 요한의 호소를 들은 그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25두카트를 모아서 지갑에 담아 주었고, 요한은 그 날 저녁 벌이에 대단히 만족하며 돈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돈 페드로는 갑자기 요한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재빨리 변장을 하고 어둠 속에서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한을 뒤쫓아 갔다. 그가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바꾼 채 요한을 불러 세우고 말했다.

“요한 형제여, 나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신사이기는 하지만 타관사람으로 빈털터리라오. 소송 관계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나의 체면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지금 절박한 곤경에 처해 있다오. 그대의 사랑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에 간청하니, 내가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소.”

요한은 상대방의 몸가짐과 말투를 유심히 살피다가 대답했다. *“나를 하느님께 바칠지어다! (이는 그가 늘상 쓰던 말이다) 내가 얻은 것을 당신에게 드리도록 하지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자루에서 25두카트를 꺼내 서슴없이 내주었고, 돈을 받은 그는 요한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돈 페드로는 도박장에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실로 정직한 인간을 만났던 일을 자축했다.

이튿날 아침에 돈 페드로 후작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병원을 구경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요한을 놀리며 말했다. *“요한 형제여, 사람들 말을 들으니 당신이 지난밤에 강도를 당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요한은 대답했다. *“나를 하느님께 바칠지어다. 아무도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군가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왔고,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주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어찌 빼앗겼다고 하겠는가?

후작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빵 덩어리 백오십 개와 양 네 마리, 닭 여덟 마리를 요한의 병원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라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런 배려를 계속해주었다.

성 찰

그들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악의를 가진 남자들의 위협적인 원,
고발하고, 폭행하고, 조소하고, 노려보고,
살의를 가지고 그녀의 공간으로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남자로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너희 중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말씀하시자

그들은 부끄러워서 그녀의 공간을 돌려주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존엄성으로 그녀를 대하여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악의를 가진 남자들의 위협적인 원.

조소하고, 노려보고,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고

그녀의 존재를 천하게 만들고 격하시키며

폭력과 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의 성 요한은 전혀 다른 남자로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녀의 공간을 돌려주고, 결코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전에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을

공손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들은 역시 그를 에워쌌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위협적인 원,

그의 진정한 의도를 조소하고, 노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이러한 여자들 역시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일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조소하는 눈빛과 폭력적인 의도를 가진 위협적인 원이 에워 쌓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외쳐 부릅니다.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

요한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했던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비하되고 폭력당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화해 그리고 신분

독 서

수도회의 토대 - 화해

천주의 요한은 로스 고멜레스 언덕에다 두 번째 병원을 세우기 훨씬 이전에 비단 그를 돕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범적인 삶을 본받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온전히 투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몇몇이 그 일에 이끌려 몰려들고 있었다. 미국의 철학자 에릭 호퍼는 말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아니라 그들의 눈동자에 나타나는 우리 자신의 영상과 그들의 말 속에서 투영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다.”

요한의 눈동자에 나타나고 말 속에서 투영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삶을 바꾼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안톤 마르틴과 페드로 벨라스코였다.

천주의 요한이 그라나다에서 사랑의 사업을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에,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페드로는 부유한 그라나다인 가문의 자손으로 여자와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또 다른 페드로 - 안톤 마르틴의 형인 아라곤의 페드로 - 를 살해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스페인 동부 해안도시 아두아나스에서 야경꾼으로 일하고 있던 안톤은 그라나다로 왔다. 그는 벨라스코를 자기 형의 살인죄로 기소하는 일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페드로 벨라스코는 그라나다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하여 어떻게든 재판일정을 늦추는 한편 안톤이 지쳐서 포기하거나 고소를 취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안톤은 돈이 떨어졌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비바람불라 광장과 어시장 서쪽 모퉁이 지역에 집을 치고 있던 매춘부들의 보호자로 나섰다.

어시장과 인근 광장을 오가며 매춘부들을 상대로 일을 한 까닭에 많은 매춘부들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안톤 마르틴과 때때로 마주치면서 서로 알고 지냈으리라는 것은 거의 불문가지다.

하루는 요한과 안톤이 꼴차 거리에서 마주쳤다 - 이 거리의 이름은 이곳에서 생산하여 판매되던 누비이불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요한은 안톤에게 형의 살인자를 용서해주도록 부탁했는데, 아마 그런 부탁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으리라. 다만 이때는 요한이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수난을 보아 안톤과 그의 집안에 잘못을 저지른 상대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만큼 필사적이었다.

안톤은 요한의 말과 행동에 감명 받아 용서해주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페드로가 수감되어 있던 감옥으로 가서 고소를 취하하고 페드로를 석방시켰다. 안톤과 페드로는 요한의 중재 덕분에 화해하고 이전의 행위를 뉘우친 다음 요한을 따라 그의 병원으로 가서 최초이자 가장 가까운 요한의 동료가 되었다.

요한은 돌아다니며 자기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길 제자들을 모집한 적은 없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형제적 모임(*hermandad*)은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이 같은 모임은 당시로서는 드문 것도 아니었다. - 실제로 이런 부류의 형제적 모임들이 너무나 많이 출현한 나머지, 천주의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 이십 년쯤 지났을 때 교황 성 비오 5세는 이런 모임들에게 인준 받은 회규를 채택하고 서원을 발하고 수도회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회칙 “불 루브리쿰 비타 제누스”(Bull Lubricum Vitae Genus)를 반포하여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을 정도였다.

로스 고멜레스 언덕

그라나다를 무어인들에게서 탈환하고 왕의 명령으로 그리스도교화 과정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란치스코 수녀회에 소속된 한 공동체가 까스띠야에서 옮겨와 로스 고멜레스 언덕이라 불리우는, 알함브라로 이어지는 몹시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곳 위치가 수녀들이 살기에는 적합치 못하여, 1540년에 로스 몰리노스 성문 근처에 있는 보다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되자 빈 수녀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천주의 요한을 후원하던 사람들 몇몇이 요한에게 이 건물을 사들여 도심지에서 그곳으로 이사하도록 권했는데, 그 가운데는 수녀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도록 도와준 레오노르 데 까세레스를 딸로 둔 도나 프란치스카 데 까세레스도 있었다. 요한은 이곳 위치가 갖는 이점들을 보고서 이 권유를 받아들여 그 동안 모금하고 은인들에게서 기부받은 돈 400두카트로 이 부동산을 사들였다.

“로스 고멜레스”로 이사 간 것은 그라나다 사람들이 천주의 요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병원으로 옮겨가고 나서는 공적으로 인정받고 지원받는 일이 순조로웠다. 어시장 주변에 있을 때만 해도 일부 사람들은 요한을 한때 정신병자로 취급받으며 시내 하층민들하고나 어울리는 수상쩍은 인물로 보았었다. 시내에서 로스 고멜레스 언덕이 어시장과 그 주변 환경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유한 후원자들이 요한을 로스 고멜레스에 자리 잡도록 흔연하게 지원했다는 사실 또한 요한이 하던 일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항구적인 것임을 굳게 믿어주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름과 복장

요한은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불렀지만, 동료 그라나다 사람들은 그를 훨씬 더 고귀하게 여겼다. 하루는 요한이 집에서 먹던 검소한 식사를 건너뛰고 친구인 돈 미구엘 무뇨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무뇨즈는 요한이 그라나다에 자리 잡은 초창기부터 그를 알고 도와주던 사람으로, 오랜 세월을 요한 데 아빌라의 제자로 있으면서 왕립병원 원장으로서 병원에 입원하는 요한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퇴원증명서에 서명하기도 했었다.

무뇨즈는 열성적인 사목자로서, 1540년 1월 28일에 그라나다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뚜이의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뚜이의 주교인 그에게 황제가 발라돌리드의 대법원장으로 봉직함으로써 나라 일을 도와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그라나다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이 연기되면서, 돈 미구엘 무뇨즈는 대법원 감찰관으로서 몇 달을 봉직하게 되었다.

그런 무뇨즈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요한에게 시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고 물었다. 일부 사람들한테서 이미 “*가난한 이들의 요한*”이라는 별명을 부여받고 있던 그는 사람들이 그저 “요한”이라고 알고들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무뇨즈 주교는 요한에게 그대는 “*천주의 요한*”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요한은 그 말에 늘 하듯이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라신다면요.*” 하는 말로 대답함으로써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천주의 요한”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요한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소나 사물과 연결시켜 ‘아빌라의’, ‘로스꼬보스의’, ‘코르도바의’, ‘톨레도의’, ‘아프리카의’ 등을 이름에다 붙여 사용했다. 그라나다에 알려진 요한의 사회경력도 어떤 특정한 지역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점이 없었다. 스페인어로 시우다드라고 번역되는 성씨 시다데는 선조가 유대인임을 드러내어 그의 사업과 대중적인 지원을 위태롭게 할 뿐으로, 카스트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요한 역시 자기 입으로는 거론하지 않았다. 요한이 “포르투갈인”이라고 불리던 시절은 과거에 이미 지나갔고,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주교는 요한에게 부계의 혈통을 나타내는 성이 필요했고, 요한이 지향하는 명확한 사업을 감안할 때 요한 자신도 사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이는 유대인개종자의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요한에게 가장 적절한 성으로 “천주의”가 알맞다는 착상을 하게 되었지 않는가 싶다.

영어권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귀에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호칭 “천주의”를 요한은 썩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그럴겠지만 스페인에서 “천주의”라는 말은 어쩌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붙여지거나 선행이 남달리 걸출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던 호칭이었다.

주교는 또한 그라나다에 있는 동안에 요한이 장차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불리며 어떤 복장을 할 것인지도 정해주고 싶은 기분이었나 보다. 천주의 요한은 길거리에서 새 옷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면 입고 있던 옷이 어떤 것이든 그 자리에서 바꾸어 입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아주 너털너털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주교는 천주의 요한에게 그 같은 옷차림이 어떻게든 그를 돕고자 하고 또 자기네 식탁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천주의 요한 형제여, 그대가 여기에서 여생 동안 지니고 살 이름을 정한 것처럼, 옷을 차려입는 방식도 정하도록 하시오. 이제부터는 속옷과 능직옷감 바지와 무명 튜닉을 입도록 하시오.*”

천주의 요한이 그 말에 동의하자 주교는 당장 사람을 보내서 시장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옷가지들을 사오게 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천주의 요한에게 선사했다. 천주의 요한은 죽는 날까지 이 차림새로 살았다. 그의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생활양식을 본받고자 노력하던 동반자들 역시 똑같이 차려입게 되었다.

성 찰

인생의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우리 여정의 동반자로 허락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한수 위'라고 보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더 능력 있고, 더 역량 있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만, 함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정의 동반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함께 함에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하루하루의 일들

독 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로스 고멜레스로 옮기면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것조차도 천주의 요한의 호스피탈리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천주의 요한은 부랑자들, 뜨내기 노동자들, 병자들을 보살피는 것 외에도 과부들과 고아들, 지위가 있다가 가난해진 이들, 소송에 걸린 이들, 부상당한 병사들, 당시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농장노동자들도 돕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돕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누구 하나 실망한 채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이면 무엇이든 너그러이 베풀었다. 혹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듣고 희망을 갖도록 격려했다.

도나 프란치스카 데 까세레스의 주도 덕분에 병원 한켠에 건물증축이 이루어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하지만 이 증축공사는 습기가 많은 날에 서둘러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공사가 완공된 바로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다.

세 번째 병원을 생각하다

도나 프란치스카 데 까세레스는 증축했던 건물이 무너져버리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해 12월에 그라나다의 귀족층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로 오가느라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알함브라에서 마르키스 데 몬데하르, 도나 프란치스카와 레오노르 까세레스(어머니와 딸), 예로니모 수도회 원장 디에고 데 리나레스 사이에 모임을 갖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그들은 이내 요한 데 아빌라 신부를 찾아갔고, 곧이어 대주교 가스팔 데 아발로스와 함께 일을 논의하러 갔다. 이 모임에서 로스 고멜레스 병원에는 더 이상 어떤 증축공사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천주의 요한에게 필요한 새 병원을 지을 땅을 찾아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그라나다의 대주교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유언집행자로 있는 돈 가스팔 데 아발로스가, 가우덱스의 주교의 유산에서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병원을 건축하기를 그들은 바랬다.

이듬해 디에고 데 리나레스 원장의 너그러운 배려로 예로니모 수도회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땅에다 새 병원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로니모 수도회가 내놓은 땅은 설계된 병원을 짓기에는 부족했고, 그래서 도나 프란치스카가 시 당국자들을 찾아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그들은 도나 프란치스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공도로를 내기 위해 떼어놓은 땅을 내주며 병

원을 짓도록 배려했다.

천주의 요한은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존의 병원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일상적인 일들에다 모든 관심을 집중한 듯싶다.

지위가 있다가 가난해진 이들

천주의 요한은 병원 안에서 할 일이 아주 많아 무척이나 바빴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의 관심은 끝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요한은 지위가 있다가 가난해진 이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스페인 사회에 불어 닥친 현상들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었다.

신세계에서 유입되는 부와 그곳의 식민지개척자들이 고국에 요구하는 보급품 및 장비들의 수요가 통화량과 이용 가능한 상품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알고 있는 현상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요한 시대의 스페인이 겪은 새로운 체험이었고,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미혼여성들, 과부들, 은퇴한 사무원들과 그밖에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전의 인생경험과 지역사회 안에서 누리던 지위 때문에 구걸하는 일이, 설령 심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힘들었던 것이다. 천주의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도 동냥했으며 빵과 고기, 생선, 석탄 및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여타의 물품들을 사들였다.

천주의 요한은 이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보살피는 한편, 이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절대로 게으름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상인들을 찾아가서 비단과 모직물 또는 아마포를 얻어다가 여자들에게 옷을 만들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가서 그들의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문제들도 아울러 거론했다.

천주의 요한은 항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호스피탤러티를 제공하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던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로스 고멜레스에 자리 잡고 있던 이른바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 하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의 하루

병원에서의 하루는 천주의 요한이 새벽에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나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새들이 감사드리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에 천주의 요한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환자들을 이끌고 기도를 드렸고, 뜨내기들을 위해 마련한 부엌에도 형제 한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드리도록 했다. 뜨내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히 알고 있던 천주의 요한은 그들이 떠

나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특히 그런 목적으로 받아놓은 옷가지들을 비롯하여,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이면 무엇이든 베풀었다.

모든 뜨내기들이 다 그 날로 떠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주의 요한은 그들 가운데 젊은 축들에게 말하곤 했다. “자자 형제 여러분, 우리 가서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합시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알함브라 산비탈이나 싸크로 몬떼로 가서 땔나무를 모았다. 천주의 요한을 비롯하여 모두가 제각기 집에서 사용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큼직한 땔 나뭇단을 매고 돌아왔다.

간호가 필요치 않는 뜨내기들과 거지들을 위해, 천주의 요한은 병원 안에다 “야간 쉼터”를 마련해놓았다. 이곳은 사람들을 이백 명까지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었으며, 부엌도 따로 갖추어져 있었다.

일단 아침식사가 끝나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순찰도 마무리되면, 천주의 요한은 동남하러 시내로 나가기 전에 으레 로스 고멜레스로 올라가 황제의 성문을 지나서 알함브라 구내로 들어갔다. 숲속에서는 그가 보살피는 “지위가 있다가 가난해진 이들” 몇몇이 적선 받는 사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를 기다리곤 했다. 그는 그들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었다. 그들 중에는 천주의 요한 자신보다 훨씬 유복하게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개중에 일부는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할라치면, 그는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 “내가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오. 나로 말하면, 나는 그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베풀고 있을 뿐이요.”

병원에 필요한 구호품과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 집을 나서기에 앞서, 요한은 모든 이들이 저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다. 그는 적선을 하러 다니다 보면 병원에서 멀리까지 가는 일이 잦았고, 그러노라면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그래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정하게 몇 마디씩 이야기하며 그들이 밤중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다.

또 다른 후안 데 아빌라

천주의 요한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들과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그에게 몸을 의탁하러 오는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도왔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병원의 일상적인 일과에 비교적 덜 매이고, 그가 시내로 들어가거나 지방으로 나들이를 갈 때 동행하며, 자신이 집을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대역을 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명을 물색해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후안 데 아빌라였다. 그런데 이 이름은 요한의 영성지도자와 이름(후안은 요한에 해당하는 스페인어다)이 같아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생기곤 했다. 요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앙굴로*였다. 요한과 앙굴로는 깊은 애정과 신뢰로 맺어진 사이였다. 그리고 그 같은 관계는 요

한의 임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앙굴로는 요한의 사후에도 요한의 병원에 남아 여러 해를 더 봉사했다.

성 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그들은 인간사의 가장 소외된 부분에 천주의 성 요한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발견한 은신처를 뒤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환영적인 장소에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세상에 대한 천주의 성 요한의 비전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경청은 수용과 새로운 배움을 성장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모욕감과 사랑

독 서

시내에서 벌어진 사소한 충돌

세월이 흐르면서 천주의 요한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자애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사이에, 그라나다 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민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그 도시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잠시 다니러온 사람들은 그와 직접 대면하기 전부터 명성으로 듣고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천주의 요한이 오전 한나절이 끝나갈 무렵, 병원을 위해 적선 받은 필수품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힘겹게 걸머지고 로스 고멜레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생긴 일도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거만하게 생긴 신사 한명이 몇 사람의 수행원을 이끌고 앞장서서 다가왔다. 그런데 길이 사람들로 붐비다 보니 어쩌다 잘못되어 요한의 바구니에 그 사람의 망토 끝자락이 걸리면서 망토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길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벌컥 화를 내며 요한을 향해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천주의 요한은 그 욕설을 참아내며 대꾸했다. “형제여,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만 한눈을 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으레 누구에게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지만,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신사인 자신을 ‘형제’라고 일컫는 요한의 ‘무례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 사람은 화가 난 나머지 요한의 얼굴을 후려했다. 그러자 요한은 얻어맞고 나서 다시 말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얻어맞는 건 당연합니다. 한 번 더 때려주십시오.” 요한이 주먹질을 당하고도 여전히 친근한 말투로 말을 걸어오자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 버릇없는 망나니 녀석을 흠씬 때주어라.”

때마침 천주의 요한과 이웃에 사는 돈 후안 데 라 또레가 길을 지나가다가 주먹질을 해대는 무리들 한가운데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다. “천주의 요한 형제,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화가 났던 사내는 천주의 요한이라는 말을 듣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싶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물었다. “이 사람이 모두들 이야기하는 ‘천주의 요한’이란 말이요?”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자 그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다.

천주의 요한 역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러자 사내는 그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요한은 꼭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다며 알아듣게 간청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아무튼 두 사람은 좋은 친구 사이로 헤어졌다. 사내는 잘못을 사과하는 뜻에서 그

날 느즈막한 시간에 금화 오십 에스쿠도를 병원으로 보내왔다.

폴레도 사건

요한이 그라나다의 매춘여성들을 선도한 결과가 다 이상적으로 끝을 맺은 것은 아니다. 한번은 네 여자가 요한에게 접근하여 부도덕한 매춘부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느끼려면 그 전에 먼저 폴레도에 가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니, 자신들을 폴레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깨끗한 양심으로 요한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일을 그대로 따르겠노라는 것이었다.

이 여인들을 폴레도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300킬로미터가 넘는 여행길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현될 전에 마음이 동한 요한은 그들을 그곳까지 데려다주겠노라고 승낙했다. 요한 자신은 어디를 가든 걸어 다녔지만 이 여인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송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한은 자신의 동료인 앙굴로와 함께 폴레도로 가기로 하고 우선 운송수단을 구하는 일부터 그에게 맡겼다.

앙굴로가 당나귀 두 마리와 그밖에 마구들을 돈내고 빌려오는 동안 요한은 병원 일을 안톤 마르틴에게 일임했고, 준비가 끝나자 일행은 곧바로 폴레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맨발에다 옷차림이 허름하여 미천해 보이는 사내 둘과 차림새가 요란하고 화장을 질게 하여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했는지 흰히 알만한 여자들 넷으로 이루어진 이 괴상한 일행은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들을 거쳐 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덕분에 일행이 작은 도시를 지날 때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한마디씩 하는가 하면 음탕한 야유에서 모멸스런 조롱까지 서슴지 않고 퍼부어댔다. 사람들은 두 남자를 두쟁이라고 부르며 여자들에게 몸값이 얼마나 될지 비웃으며 훨씬 상스러운 질문들까지 거침없이 해댔다.

인내심이 강한 요한은 묵묵히 입을 다문 채 그저 앞만 보고 모든 것을 지나쳤지만, 포용력이 약한 앙굴로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야유에 발끈하여 요한에게 불통거리곤 했다. “우리에게 이토록 수많은 모욕을 안겨주는 이런 창피스런 인간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 더욱이 우리가 알마그로를 지날 때 한 여자가 일행에서 빠져나가는 걸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약한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이 폴레도에 도착하자마자, 남은 세 여자들 중 둘이 옆 골목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요한의 동반자는 이 일로 그만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이 짓이 대체 무슨 미친 짓입니까? 이런 사악한 인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이런 것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발 모두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모두가 다 똑같은 족속들이라고요.”

그러자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 후안아, 만약 네가 모뜨릴에 가서 생선 네 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도중에 세 상자가 상해서 못쓰게 되고 한 상자

만 싱싱한 채로 남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한 것들을 버리면서 싱싱한 것도 함께 버리겠느냐? 우리가 데려온 여인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착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질 않느냐?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참고, 이 여인과 함께 그라나다로 돌아가자꾸나.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한 말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여행이 아무런 소득 없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 보자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톨레도에서 볼일을 마친 성실한 여인과 함께 예정된 경로를 거쳐 그라나다로 돌아왔다. 요한은 그라나다에서 좋은 남자를 찾아내어 그녀와 결혼시켰다. 1580년 무렵에 앙굴로는 이번 여행에 관해 기술한 자신의 글을 카스트로에게 보여주면서 그 여인이 아직 살아 있고 홀몸이 되었지만 가락하리 만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 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엄청난 자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분노, 좌절
그리고 배은망덕에 다른 뺨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나를 격노케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볼 때 나타납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획된 책략,
계획이나 전략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잘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간의
'주고 받기식' 요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에게 베풀어질 때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분개하는 삶에서
흡족함의 순간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성실과 진실을 담은 펼쳐진 책임입니다.

사랑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나는 요한의 방법을 배워야 하고

용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랑은 항상 희망하고,
무엇이든 견디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가 도왔던 여인에게 희망했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망합니다.
사랑은 요한과 같은 인내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끝이 없기에.

사랑은 무한한 능력을 가집니다.
사랑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강력한 호스피탈리티의 그릇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공손하게 데리고 갔듯이.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요한의 목적지

독 서

발라돌리드와 궁정으로

천주의 요한은 그라나다에 자리 잡은 초기 시절부터 늘 영성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왔다. 요한 데 아빌라 신부가 첫 번째 영성지도자로 지명한 사람은 도밍고 알바르도 신부였다. 그리고 후에는 루이스 페레즈 포르틸료 신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빌라는 1548년 상반기 대부분을 그라나다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천주의 요한과 함께 1548년 4월 6일에 있었던 알바르도 신부의 장례식을 거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한의 빛은 또 다시 급속도로 불어갔고, 그래서 필경 아빌라의 권유로 섭정황태자와 그곳 대신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발라돌리드에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병원의 관리 일체를 동료 안톤 마르틴에게 일임하고 1548년 늦봄에 발라돌리드까지 500킬로미터 여행길을 걸어서 출발했다. 목적지가 발라돌리드이기는 했지만 천주의 요한은 도중에 여러 주요도시들을 들르게 된다. 그는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자선모금을 계속했다.

톨레도

톨레도는 그라나다와 발라돌리드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요한이 이곳에 당도해 보니 그의 명성이 먼저 전해져서 사람들은 서로 그를 만나 적선을 하고 싶어했다. 요한은 톨레도의 가난한 이들 역시 그라나다의 가난한 이들 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들을 도울 결심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중에 그라나다로 돌아왔을 때,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페르디난도를 1549년 초에 톨레도로 보내 떠돌이들과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이곳은 얼마 후 그라나다에 있는 천주의 요한의 병원과 비슷한 병원이 되었다.

오라빠사

톨레도 서쪽에 오라빠사가 있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어릴 적 삶의 무대를 그의 방문지에 포함시켰다. 요한이 목동 시절에 행동으로 보여준 인정어린 일들을 기억하고 있던 마을사람들은 총애 받는 아들이자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요한의 뛰어난 유머와 늘 미소 짓는 얼굴, 섭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아는 오라빠사에 사는 옛 친구들과 동료들은 “천주의 요한” 보다는 다른 칭호로 그를 부르기를 바랐다. 그들은 요한을 “*천주 안에 희망인 요한*”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살라만카

살라만카는 천주의 요한이 발라돌리드로 향하는 여정에서 발라돌리드 다음으로 중요한 방문지였다. 1218년에 설립된 7000명 정원의 대학이 있는 살라만카는 요한이 돌아본 도시들 가운데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 그곳 시민들과 학생들은 요한의 외모와 행동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그들은 일찍이 이런 식으로 적선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 맨머리에다 맨발을 하고 어깨에 바구니를 돌려 맨 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스스로를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하라고 외쳐대는 모습을 -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것이다!

요한을 대하는 살라만카 시민들의 태도가 크게 변한 것은 시내 병원들 가운데 한 곳인 블랑카 성모 마리아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매독환자를 요한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았을 때였다. 요한은 그 환자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여 승낙받은 다음 그를 다른 병원인 산 베르나르도로 데려가서 자신이 직접 환자를 보살필 테니 장소만 마련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손수 환자를 보살폈고, 그로 인해 13세기 초부터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에 그의 명성이 퍼져나갔다.

요한이 살라만카에 머물고 있을 때 젊은 화가 알론소 산체즈 코엘료가 그를 보고 스케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종견화가가 된 코엘료는 이 스케치를 토대로 초상화를 그려냈다. 그가 그린 천주의 요한의 초상화 복제품이 현재 그라나다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다.

발라돌리드

요한이 줄곧 목적지로 삼고 있던 곳은 발라돌리드였고, 그리하여 살라만카에서 북동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한 끝에, 그라나다를 출발한지 두 달여 만에 마침내 왕궁에 당도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죽음을 맞이한 발라돌리드는 필립 2세가 궁정을 마드리드로 옮겨간 1561년까지 스페인의 수도였다.

천주의 요한이 왕궁에 도착하자 데 텐딜라 백작을 비롯하여 요한을 알고 있던 귀족들이 황태자에게 요한이 찾아왔다는 것과 그가 그라나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렸다. 황태자는 명령을 내려 요한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명하여 꽤 오래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끝나자, 앙굴로란 성을 가진 병참대신을 불러 요한에게 구호금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때마침 황제의 누이들도 시녀들을 대동하고 발라돌리드에 머물러 있었고, 요한은 날마다 그들을 찾아가 만났다. 그들도 요한에게 구호품과 보석들을 내주었고, 요한은 그것을 발라돌리드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썼다.

천주의 요한은 황태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저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내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군주요 주인이요 왕이시니 저는 폐하께 복종해야 할 몸입니다. 제가 어떻게 폐하를 불러야 할까요?*” 황태자가 대답했다. “*요한이여, 그대가 부르고 싶은 대*

로 부르도록 하오.” 그러자 당시에 그는 아직 임금 자리에 오르지 못한 황태자였던 까닭에 천주의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폐하를 선택하신 황태자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스페인어로는 서로 유사한 ‘황태자’와 ‘출발’이라는 낱말들로 말재간을 부리듯이 말을 이어간다.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황태자님의 주권에 훌륭한 출발을, 황태자님의 치세에 훌륭하고 올바른 손길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황태자님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얻는 훌륭한 끝맺음을 허락하시기 기원합니다.*”

요한은 자선금을 호소한다는 일반적인 일 외에도 황태자에게 건의할 특별한 사안도 하나 지니고 있었다. 그라나다에서 그의 보살핌을 받는 지위가 있다가 가난해진 이들 가운데 루이사 데 라 크루즈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다섯이 딸린 과부였는데, 말이가 스페인 해군에 입대하여 노예들이 젖는 배에서 근무했다. 그러다가 전투 중에 무어인들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무어인들은 그에게 몸값을 내면 석방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내놓고 있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황태자는 요한에게 주도록 명령한 자선 금에다 그 소년의 몸값을 더 얹어주라고 지시했다.

발라돌리드에서 왕녀들을 모시던 시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후원자 중 하나인 세싸 공작부인의 어머니였다. 이름이 도나 마리아 데 멘도자 사르미엔토였던 그녀는 과부로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도와주던 너그러운 은인이었다. 그녀는 천주의 요한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발라돌리드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 일체를 제공해주었다. 그녀 역시 자선금을 내놓았고, 요한은 그것을 그 도시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천주의 요한이 그라나다 빗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라돌리드로 모금하러 가서는 모금한 자선 금들을 그곳에서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모순으로 보였다.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이 요한에게 물었다. “*천주의 요한 형제여, 어찌하여 돈을 간직했다가 그라나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져가지 않는 겁니까?*” 이 물음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이러했다: “*형제여, 돈을 이곳에서 나누어주든 그라나다에서 나누어주든 모두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위한 일입니다.*”

천주의 요한의 발라돌리드 방문은 재정적으로 대단한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들어오는 기부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르는 몇 달을 발라돌리드에서 보낸 요한도 그라나다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유달리 혹독한 겨울 고생에 시달리기 전에 그라나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요한은 궁정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작별하고 그라나다로 돌아가는 귀환길에 올랐다. 그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도나 마리아 데 멘도자 사르미엔토와 마르케스 데 몬데하르를 비롯한 여러 귀족들은 요한이 모금한 돈을 집에도착하기도 전에 주어 없애지 못하도록, 그라나다에 가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약속어음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은 자신을 비우고, 환경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경험 속에 뛰어들었으며, 우리보다 덜 가진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단순한 자선을 실천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에서 적절한 위치의 체면, 안전과 평안함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부르십니다. 그들이 발견되는 장소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삶과 일상의 환경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알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 안에서, 인간적 유대의 행동 안에서만 삶의 비애를 넘어서서 볼 수 있으며 인간적 유대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신 천주의 성 요한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감은 나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낭만적 여행도 아닙니다. 궁핍한 이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스스로 거절을 경험하고 버려진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독 서

고행자

그라나다로 돌아오는 귀환길에서 천주의 요한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행자와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으리라. 천주의 요한은 어디를 여행하든 늘 걸어 다녔다. 머리와 발에 무엇을 쓰거나 신은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 여행 도중에 발은 돌부리에 부딪쳐 상처투성이였으며 머리피부는 햇볕에 타서 허물이 벗겨지곤 했다. 게다가 거친 모직바지에다 허리끈으로 졸라맨 튜닉을 받쳐 입었을 뿐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두터운 튜닉이 피부와 맞닿아서 살갓에 통증을 일으켰다.

집을 떠나 식사에 초대받아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면 그는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었다. (집에 있을 때는 보통 구운 양파나 아주 흔한 그런 음식을 먹곤 했다.) 규정된 단식일이면 아침식사를 건너뛰는 것은 물론 온종일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빵과 물만 먹었다.

그는 마룻바닥에 거친 돛자리를 깔고 얇은 담요 한 장을 덮은 채 잠자곤 했다. (집에서는 계단 밑 좁은 공간에서 신체장애인을 이동할차 위에 누워서 잤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진짜 고행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안녕을 보살피는 철저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밖에 당한 고통들

천주의 요한 시대에는 악마의 현존과 사악한 활동이 종교와 민간전승과 예술을 통해 대중의 의식 속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단감시소는 이 갖은 상황에 나름대로 독특한 기여를 했다. 악마가 요한을 찾아와 괴롭힌 이야기들은 많이 돌았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꾸어 다른 문제로 넘어가곤 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다

그라나다는 발라돌리드와 궁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천주의 요한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를 가장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 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그들의 아버지나 같았고, 그들 역시 그를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라나다의 일반 시민들도 천주의 요한이 다시 그들 가운데로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 좋아했다. 그들은 그가 자기네 도시에 봉사하고 있고, 이 도시의 인상과 평판에 광채를 더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천주의 요한은 발라돌리드로 떠날 당시 그의 속을 썩이던 빚들을 당장 청산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 병원의 생활이 정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그

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빚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더욱 힘겨운 상황과 인신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힘든 손님

천주의 요한은 여자들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신중하게 대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성들과 올바르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어울려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안겨주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 요한은 그녀가 매춘을 그만두도록 도왔고 알맞은 신랑감도 구해주었다. 그런데 여자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곧바로 요한에게 부탁을 해왔고, 요한은 그녀가 부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내주곤 했다. 그녀가 다시 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데 한번은 요한한테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외투마저 주어버리고 나서 지근거리는 몸을 담요로 휘감고 앉아 있던 참이었다. 그가 여자에게 나중에 다시 오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은 못된 사내야, 당신은 경건한 체하는 위선자라고!” 그 말을 들은 요한이 대꾸했다. “자, 이 동전 두 닢을 받고 광장으로 달려 나가 그 말을 큰소리로 외쳐주오.” 여자는 계속해서 요한에게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는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늦든 빠르든 그대를 용서해야 할 테니, 차라리 지금 당장 용서하리다.” 장례식장에서 천주의 요한의 선행과 모범이 자신을 죄와 불행한 삶에서 구해주었노라고 큰소리로 외친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여자였다.

천주의 요한이 그 모든 일을 행한 원동력 -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 - 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으로 나타났다. 그의 기본 생활원칙은 “육을 통해 영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린다는 것이다.

앙굴로의 결혼

천주의 요한은 살날이 채 일 년도 남아 있지 않던 1549년 5월 14일에, 자신의 친구 앙굴로가 베아트리즈 데 아이바르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을 맛보았다. 결혼식은 물론 그가 참석한 가운데 대교구 부교구장의 특별허가로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 거행되었다. 이 결혼의 첫 열매는 천주의 요한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열이틀 만에 태어나서 (말할 것도 없이) 요한으로 이름 지어진 사내아이였다.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에 끊임없이 그의 복음적 소명의 씨앗을 심으신다. 고동치는 맥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가치에 굶주려 있는 세상에서 그분의 치유의 도구로써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때로 나의 인생 여정의 길가에 씨앗이 뿌려질 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도 중요한 번잡한 일들에 붙들려 있어서, 사랑의 씨앗을 소중히 길러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나의 환대를 누려보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아주 번잡한 길을 앞서서 빨리 따라 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호스피탈리티의 부르심의 씨앗은 이를 소중히 여겨, 심는 이의 비옥한 땅에 떨어져, 섬세하고, 연약한 생명을 아주 잘 고이고이 가꾸어서,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는 튼튼한 나무로 변화시킨다. 신앙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약속인 치유의 호스피탈리티의 백배의 수확을 거두어냅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치유의 수확

독 서

왕립병원의 화재

이 결혼식이 있고 나서 석 달쯤 후에 그라나다에서는 또 다른 잔치가 있었는데, 결과는 무척이나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다. 1549년 7월 3일에 왕립병원에서 도나 막달레나 데 보바딜라를 기리는 잔치가 열렸다.

병원 부엌에서는 작은 새들이며 갖가지 양념과 향신료로 채워 넣은 황소를 굽기 위해 엄청나게 큰 화덕에 불이 지펴졌다. 그런데 오전 11시 무렵에 불길에 치솟더니 건잡을 수 없이 병원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천주의 요한은 화재 소식을 듣자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다. 병원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그는 곧바로 정신병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장소로 찾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환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구출한 요한은 불길이 번지고 있는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불길을 잡는 일을 도왔다. 그는 침구들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때 별안간 거대한 화염이 그를 덮치면서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덩벼들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천주의 요한이 불길에 휩싸여 갇혀버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눈썹만 그을렸을 뿐 흠집 하나 없이 말짱한 모습으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 광경을 죽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실로 불가사의하게 불길과 죽음을 빠져나왔다고 여겼다.

익사 사고

천주의 요한은 마지막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불 뿐만 아니라 물로도 시험을 받았다.

천주의 요한은 노고와 여행으로 지친 나머지 심하게 앓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 내린 큰비로 지독하게 차가운 헤닐 강이 ‘범람하여’ 물길이 시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땀감으로 사용하거나 팔 수 있는 통나무와 잔가지들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과거처럼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요한의 생애에서 돈들이지 않고 모아들인 땀나무는 주워다 팔면 그 자신과 ‘그에게 딸린’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꾸리는데 보탬을 주던 일종의 만나나 같았다. 따라서 이런 땀감들을 가만히 앉아서 놓칠 리는 만무했으니, 자신의 병은 무시한 채 금방 떠내려가 버릴 수확물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비교적 건강한 사내들과 비교적 몸집이 큰 소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나갔다.

눈과 진눈깨비가 녹아든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천주의 요한이 데리

고 나간 소년들 중 한명이 강물에 빠져 물살에 휩쓸려 가버렸다. 요한은 그를 구하려고 물로 뛰어들었지만 구하지 못했고, 소년은 익사하고 말았다. 이 슬픈 사건은 요한을 물에 흠뻑 젖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깊은 낙담에 빠뜨려 놓았다. 이로 인해 그의 병은 악화되었고, 그날부터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져 갔다.

천주의 요한은 억지로 침상에 누워야 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딸린’ 가난한 이들과는 여전히 직접 대하고 자신의 벗들과 동료들을 격려하며 지도할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다.

성 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소리치는 절망적이며 뇌리를 떠나지 않는 헤닐강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에는 그 외침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근심의 급류에 휘말리고 있는 이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무관심의 세상에서 버려지고, 단절되고, 표류하는 이들의 외로움의 외침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위협에 처한 이들의 외침도 있습니다.

천주의 성 요한은 자신의 몸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 생명의 보호자로 자처하셨습니다.

쉽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여정으로 지쳐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한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요한의 마지막 임무

독 서

소환통보를 받다

요한은 비난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마땅히 알 만한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요한이 침상에 묶여 있는 동안 악의는 없지만 요한의 일처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참견꾼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탐탁지 않게 생각해오던 요한의 운영방침을 바꾸려 들었다. 그들은 대주교 돈 페드로 구에레로를 찾아가 천주의 요한 병원에 일할 능력이 다분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이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것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마다 요한을 헐뜯고 다니는 일부 몸쓸 여자들도 병원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고해바쳤다. 그러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대주교 한 사람뿐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요한 데 아빌라 신부의 천거로 그 지위에 올랐고 천주의 요한과 그의 활동에 관해서 일정한 “관찰 보고”를 받고 있던 대주교는 불만사항들에 주목하고, 요한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를 불러오도록 지시했다. 천주의 요한은 소환통보를 받자마자 당장 침상에서 일어나 대주교 앞으로 나아갔다.

대주교가 요한에게 말했다. “천주의 요한 형제여, 나는 그대의 병원에 못된 표양을 보이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버릇없는 행실 때문에 그대가 심히 고생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소. 그러니 그들을 내보내서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함으로써,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가난한 이들이 그들한테 시달리거나 잘못 대접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천주의 요한은 대주교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대답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훌륭하신 대주교님, 사악하고 완고하고 쓸모없고 그래서 하느님의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사람은 저 한명 뿐입니다. 병원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착한 사람들이며, 저는 그 가운데 어느 누구의 나쁜 점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악한 자들과 선한 이들 모두를 참아주고 계시며, 날마다 그들 모두에게 햇살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이들과 학대받는 이들이 자기네 집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딸린’ 가난한 이들을 한없는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탓도 하려 들지 않는 천주의 요한의 답변에 대주교는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요한 형제여, 평안히 가시오. 병원을 그대의 집이라 여기고 그대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겠소.” 천주의 요한은 자기 병원으로, 설령 육신은 치유 받지 못했을망정 마음은 치유 받은 자신의 가난한 이들에게로 돌아갔다.

마지막 의무

1550년 2월에 천주의 요한은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를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재정문제를 정리해둠으로써 자신이 죽었을 때 채권자들이 자기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요한은 서기 한 사람을 대동하고 시내 전역으로 채권자들을 찾아다녔다. 개중에는 요한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이들도 있었다. 요한은 채권자와 그들에게 진 빚을 목록으로 작성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사본 한 부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원본은 자신의 튜닉 소매자락에다 간수하고 사본은 병원 금고에 보관해둠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자들의 권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조치했다.

성 찰

거짓으로 희생양이 된 이들과 좋지 않은 언어농단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들에게 가해진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정의와 공명정대함이 이 사회에 퍼지게 하여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천주의 성 요한처럼 우리도 강한 옹호자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처럼 강한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권리의 보호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마지막 여정

독 서

최후의 병상

천주의 요한은 사실 말뜻 그대로 ‘마당발’이 되어 있었다. 그는 거의 날마다 시내나 인근 시골을 오갔다. 그는 대주교의 관저, 성직자들의 거처, 귀족들의 대저택, 부잣집, 가난한 사람들의 오두막을 드나들었다. 그런가 하면 여인숙과 사창가, 법률가 사무실, 상인 회계사무소, 상점, 장터, 감옥 등등을 찾아다녔다.

그라나다에는 요한이 거의 매일같이 방문하는 집이 몇 곳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돈 가르시아 데 피사의 집인 ‘까사 데 로스 피사’였다. 요한은 적선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집 안마당에 들어서 썬가에 앉아 물을 마시고 안주인 도나 안나 오소리오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대개는 이 집에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오곤 했다. 이 집에서 로스 고멜레스 언덕에 있는 그의 병원까지는 불과 몇 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2월이 끝나갈 무렵, 천주의 요한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피사의 집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자 도나 안나는 요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알아보니 요한이 너무나 아파서 자기 병원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나 안나는 당장 요한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 사람들이 그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서서 그의 방을 들고 나는 통에 그는 필요한 휴식을 취할 틈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요한에게 침대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다. 이곳 병원에서 그는 가지고 다니던 바구니를 베개 삼아 베고 두툼한 널빤지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요한은 자기 사람들 속에서 죽고 묻히고 싶다는 이유로 그녀의 초대를 사양했다. 하지만 도나 안나가 재빨리 서둔 덕분에 대주교가 개입하여 요한에게 그녀의 집으로 옮겨가서 간호를 받으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도나 안나는 요한을 피사의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 안락한 가마를 보냈다. 요한이 가마에 오르자마자, 그의 보살핌을 받던 가난한 이들은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자기들 곁에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에워싸고 가마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다. 요한은 ‘자기에게 딸린’ 가난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죽고 싶어 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을 때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이 ‘그의’ 가난한 이들과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축복의 말이었다. “나의 자녀들이여, 평안히들 있으시오.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 기도드려 주시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울음을

터뜨리며 탄식하기 시작하자, 요한은 가마 안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도나 안나의 하인들이 가마를 들고 피사의 집으로 향했다.

임종을 맞이한 방

가마가 당도하자 사람들은 요한을 바깥 창을 통해 햇살이 환하게 비쳐드는 방으로 데려가서 깨끗한 잠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힌 다음, 가족 주치의의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다.

피사 집안의 여덟 자녀(아들 다섯에 딸 셋)는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계단 발치에 배치된 경비원 또한 가난한 사람을 한명이라도 들여보내 자기네 고층으로 요한을 신경 쓰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피사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크리스토팔과 어린 누이동생 마리아, 둘이 하루는 살금살금 요한의 방으로 숨어들었다가 요한이 마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듯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병으로 그토록 마르고 연약한 사람이 어째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요한은 꼭 해야 할 것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주교 구에레로는 천주의 요한이 피사의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그를 보러 왔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걸며 최후의 여정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거든 자기에게 털어놓아 자신이 그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천주의 요한이 말했다. *“나의 아버지, 선하신 목자시여, 내게는 세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어 누린 반면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도 미진했습니다. 둘째로, 내가 남달리 관심을 쏟았던 사람들인 지위가 있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나의 세 번째 걱정거리는 내가 지고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걸머져야 했던 빛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채권자와 채무 내역이 적힌 목록을 대주교에게 넘겨주었다. 대주교는 목록을 받아들고 말했다. *“내 형제여, 그대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자비를 믿도록 하시오. 그분은 그대의 온갖 잘못들을 당신 수난의 공로로 채워주실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내게 있는 만큼 내가 그들을 넘겨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진 빛에 대해서는 그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내가 모두 처리하리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대의 구원과 그대 자신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도록 하오.”*

대주교가 찾아와 해준 약속들은 천주의 요한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다. 두 사람은 작별인사를 몇 마디 나누었고, 그런 다음 요한은 대주교의 손에 입을 맞추며 축복을 요청했다. 대주교는 그를 축복하고 나서 그의 머리맡을 떠나 곧장 병원으로 가서 요한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천주의

요한이 다시는 병원에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을 알고 동요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삼월에 들어서면서 처음 며칠 동안에 천주의 요한은 몸 상태가 더 이상 영성체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성체성사는 받았다. 삼월 첫째 주일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루치나 거리 시절부터 줄곧 그와 함께 해온 동반자 안톤 마르틴을 불러서 가난한 이들을 - 특히 고아들과 지위가 있다가 가난해진 이들을 - 보살피는 일을 그에게 일임했다.

임종과 장례

1550년 3월 8일 토요일, 자정을 삼십 분쯤 넘긴 시각에 천주의 요한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감지했다. 그는 자기 방에서 철야기도를 바치는 여인들과 사제들이 보는 앞에서 침대를 빠져나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상을 받쳐들고 응시했다. 그러다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고 나서 사람들 곁을, 이승을 떠나 내세로 건너갔다.

천주의 요한의 몸은 영혼이 떠난 상태에서도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옆으로 쓰러지지 않았다 - 몸이 무릎 꿇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마치 목상에 잠겨 있거나 기도를 바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말없이 그리고 차분하게 그 모습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십오 분쯤 지나서 정상적인 자세로 자리에 눕혔다.

누에바 광장으로 돌아오다

그날 아침에 누에바 광장에 나와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준비가 끝나고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의 마지막 지상 여정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단편적으로 주고받던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그들이 전해들은 말에 따르면, 천주의 요한의 시신은 그가 숨을 거둔 그 방 침대에 곱게 눕혀져 있었다. 제단이 세 개 세워지고, 시내 성직자 한분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그라나다 시장과 수하의 관리들이 도착하여 절차를 감독하려 나서면서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

그 직후에 관을 메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르케스 데 타리파, 마르케스 데 세랄보, 돈 페드로 데 보바딜라, 후안 데 게바라가 그들이었다.

다음으로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 요한이 결혼을 주선한 여인들, 요한이 돌보아온 과부들과 미혼여성들이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이 행렬 선두에 서게 되었다.

행렬은 천주의 요한이 숨을 거둔 그 집, 그 방에서 관을 메는 사람들이 고인을 어깨에 메고 아랫길로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다. 아랫길로 나오자 작은 형제 수도회의 가르까모 신부가 수사 여덟 명을 데리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분은 생전

에 우리 아버지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과 보속과 무소유를 빈틈없이 본받았으니, 우리가 이분의 시신을 운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은 승낙을 받고 한동안 관을 메고 가다가 다른 수도회 수도자들에게 넘겼고, 이렇게 차례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승리의 성모 성당까지 이르렀다. 요한의 병원에는 성당이 없어서 도나 안나가 이곳 성당에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묘지에다 그를 안장하기로 했던 것이다.

행렬 맨 앞에는 천주의 요한 병원에서 기거하는 이들과 걸을 수 있는 병자들이 자리 잡았고, 그 뒤로 천주의 요한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여인들이 촛불을 켜들고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천주의 요한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선행을 큰소리로 찬양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신심단체들이 저마다 십자가와 깃발을 들고 그 뒤를 따랐고, 시내의 성직자들과 다양한 수도회 수도자들이 다시 그 뒤를 이었다. 요한의 병원이 산타 아나 본당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터라, 이 본당에 소속된 성직자들은 장례행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끝으로 관가(棺架) 바로 앞에는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관가 바로 뒤에는 부인을 대동한 이 도시의 재판관들과 24인 평의회 의원들, 기사들과 신사들이 줄을 이었다. 왕립 재판소 관리들과 법률가들이 이들 뒤를 따랐고, 맨 마지막에는 누에바 광장에서 자기네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비단 오랜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천주의 요한에게 애도를 표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인개종자들 역시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떠메고 가는 천주의 요한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들에게 보여준 친절과 관용과 훌륭한 모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모국어인 아랍어로 요한에게 천 가지 축복을 기원했다.

대성당에서 본당과 수도원의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탑들은 종을 울려서 천주의 요한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렸다.

장례행렬이 승리의 성모 성당 입구에 당도하여 발걸음을 멈추자, 사람들은 묵주나 기도서나 여타의 물품들을 시신에다 대어 기념품으로 간직하려고 앞다투어 몰려나왔다.

마침내 유해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 아름답게 장식한 관대(棺臺) 위에 안치되면서 장례미사가 시작되었다. 설교를 맡은 프란치스코 미넴회 신부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이 업신여기는 비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이야기했다.

요한은 가르시아 데 피사 집안의 가족성당 지하묘지에 묻혔다. 이렇게 해서 이곳 지상에서 요한의 삶은 끝이 났지만, 그는 하늘나라에서 그라나다와 온 세상을 위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로서.

성 찰

천주의 성 요한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에 끊임없이 그의 복음적 소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고동치는 맥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가치에 굶

주려 있는 세상에서 그분의 치유의 도구로써 우리를 부르십니다.
좋은 수확을 거두러 나갈 때;
심은 씨앗의 풍성한 생산을 거둘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의 주인도 그 재산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청지기요, 그분의 선물의 관리자요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남기도록 지시합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인 과수원에서 자라난
올리브 나무를 두들길 때,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을 흠족하게 바라보거나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다 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세밀히 살펴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보다 행운이 덜한 사람들, 즉 이 세상의 버림받은 이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스런 자기 파괴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포도 덩굴에 매달린 잘 익은 열매를 거둘 때
그리고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일 때,
하느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즐기이며
하느님의 가난한 백성들이 당신의 문을 두들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그네, 과부 혹은 고아들을 홀대하지 마시오.
당신의 축복은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의 성 요한 가족들이여, 자신을 위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주시오 그러면 그것은 가득차고 넘쳐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너그럽게 주시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소외의 벽들을 허무시오.
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의 영원히 넓혀질 환영의 원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맺는 말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자애 운동은 그 후 여러 세기를 이어져 오면서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시복 절차(1630년)와 시성 절차(1690년)를 거쳐 요한을 성인으로 선포함으로써 그의 영웅적인 선행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재확인해주었다. 천주의 요한은 1886년에 병원과 병자들을 지켜주는 천상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오늘날 천주의 요한을 따르는 이들은 그의 정신을 *호스피탈리티(환대)*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이처럼 유일무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호스피탈리티*는 요한의 사후에 그라나다와 그밖에 장소에서 그의 사업을 이어온 동료들이 모여 만든 수도회를 통해 수세기에 걸쳐 자라고 보존되어왔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로 알려져 있는 이 수도가족의 존재는 15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스피탈리티*는 또한 첫출발부터 평신도들에 의해 발전되고 표현되어왔다. 천주의 성 요한은 그의 편지들 속에서 수도자가 아닌 협력자들과 그들에게서 받은 도움을 거듭거듭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천주의 성 요한 이야기는 협조자, 은인, 자원봉사자들이 역사의 매순간마다 *호스피탈리티*를 떠받쳐온 이야기인 것이다.

두 편지

독 서

천주의 성요한이 구피에레 라쏘에게 보낸 둘째 편지

병자들, 건강한 자들, 노숙인인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자들을 합하면 백 명하고도 열 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온갖 종류의 환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노숙인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장애인들, 나환자, 청각장애인들, 정신질환자, 중풍 병자, 피부질환자,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어 저희는 그들의 추위를 녹여 주고 음식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정기적인 금전적인 수입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모두 보살펴 주십니다. 빵, 고기, 밀가루, 땔나무, 그 밖에 의약품, 의류들을 마련 하려면 하루 평균 4두캇트 2릴에서 5두캇트 까지 소요됩니다.

1581년 그라나다 형제들에게 대주교의 편지

여러 가지 자선의 방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처음 창립자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엄청난 영적 열정을 가지고 신도들이 제공하는 헌금을 모아 그 돈이 주의 깊고 성실히 쓰여 지게 돕는 일은 성스럽고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한 성스러운 집에 모여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기 위해 그 돈을 정의롭고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창립자로부터 물려받은 사랑과 동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사님들, 흥년이 계속되고 있는 요 몇 년 사이에도 여러분의 병원은 거의 기적적으로 여유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속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 찰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천주의 성 요한을 닮아 우리들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천주의 성 요한의 방식으로 사랑과 희망을 지속적으로 전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인 요청들 즉,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여성들, 난민들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호스피탈러 준비를 위한 성 요한 그란데

독 서

"성 요한 그란데의 생애와 일" 중에서.

요한 그란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포목상을 하는 자신의 삶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18세의 나이로 고향 카르모나를 떠나 마르체나 근처의 작은 움막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였다. 움막에 기거하며 요한은 피정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였다. 마르체나에 있는 동안 그는 헤레스시로 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헤레스시에 도착하였을 때, 요한 그란데는 프란치스코 수사들과 함께 지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지 조언을 구하였다. 그들은 요한에게 합동 교회의 교구에 있는 감옥에서 봉사할 것을 명했으며 요한은 일하는 곳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6세기 스페인의 감옥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감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불결함, 악취 그리고 무서운 질병들의 온상. 종종 더러운 감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죄수들은 배고픔과 방치로 인하여 죽기도 했다.

요한 그란데는 죄수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어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죄수들의 배고픔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빛을 갚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그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였다. 그 당시 죄수들 중 상당수는 빛을 갚은 능력이 없어서 감금되었다.

그 죄수들이 뜻하지 않는 요한의 도움에 얼마나 기뻐하였을지는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태도가 점점 나타났는데, 죄수들 중 다수가 요한 그란데를 구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요한 그란데가 염탐꾼이거나 아니면 멋모르는 착한 사람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환멸을 느끼고 결국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고 심지어 오물과 쓰레기를 그에게 던졌다. 진절머리가 나기는 커녕, 이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예전보다도 더 깊이 자신이 함께 살기로 선택한 이 사람들이 경험한 불행을 깨닫게 할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견디어내야 하는 무서운 빈곤을 덜어주는데 자신의 일생을 투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는데 기여하였다.

성 찰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거룩한 분이셨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특정한 시대, 장소, 문화, 가정 그리고 학습 요구 등에 자신을 국한시켜서 인간의 경험 속에 뛰어들었으며, 우리의 투쟁, 우리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경험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라는 긴밀한 유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들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풍요로운 축복의 전망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약속하신 영원무궁한 가능성으로 뻗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살기를 선택하신 하느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가 요한 그란데를 부르셨듯이, 행운을 가진 우리가 우쭐대는 자세로 우리보다 덜 가진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단순한 자선을 초월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에서 적절한 위치의 체면, 안전과 평안함을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절당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부르십니다. 그들이 발견되는 장소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삶과 일상의 환경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환치의 선택 안에서, 인간적 유대의 행동 안에서만 삶의 비애를 넘어서서 볼 수 있으며 인간적 유대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신 하느님을 반영하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감은 나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의 낭만적 여행도 아닙니다. 궁핍한 이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스스로 거절을 경험하고 버려진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믿을 수 없을 만치 포괄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까지 말입니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성 요한 그란데와 흑사병

독 서

“성 요한 그란데의 생애와 업적” 에서 발췌

1600년도에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발생하여 헤레즈시는 도탄에 빠졌다. 흑사병은 매우 빠르게 번져갔고 죽음이 도시의 모든 거리마다 모든 가족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최후의 날이 온 것이라 믿었다. 한때는 아주 번영하였던 도시가 파괴와, 죽음, 기아와 공포의 도시로 변하는 것은 삽시간이었다.

요한 그란데와 그의 동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데 헌신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자신들도 무서운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요한 그란데에게 이 근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5월 27일에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의 방에서 지내야 했다. 이때 절망의 도시와 요한 그란데의 병원은 병자와 죽어 가는 사람과 사망자로 넘쳐났다. 비록 도시의 좀 더 사정이 나은 부인들이 요한 그란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는 대부분 병상에 혼자 있었고 거의 간호를 받지 못하였다.

요한 그란데는 1600년 6월 3일에 캔들마스 성모 병원의 그의 작은 방에서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전염의 위험이 있어 그의 시신은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밧줄로 묶여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돌려 내려가 조급하게 관에 넣어져 병원 안뜰 나무 발치에 묻혔다. 장례식도 없었고, 조문을 오는 이도 없었으며, 화려한 묘비조차 없었다. 그의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치료방법 조차 없었던 흑사병이란 극한 상황에서도 호스피털리티 정신은 소홀히 되지 않은 것이다.

성 찰

흑사병의 파괴와 공포가 도시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 모든 것이 상실된 곳에,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몸을 사릴 때, 이미 감염된 사람을 잔인하게 버리던 곳에, 하느님은 이러한 배척의 틀을 깨는 사람 안에 계셨다. 그에게 기대되었던 것 이상을 하는 사람, 그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동정심과 동료애를 베푸는 사람을 통하여 주는 당신이 현존하심을 드러내신다.

에이즈라는 파괴와 공포의 질병이 세상을 위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

린 사람을 잔인하게 배척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고, 차별과 악마주의가 이성과 상식과 자리를 바꿔버리는 곳에서, 용기 있게 사회적 분리를 뛰어 넘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는 다른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보이는 히스테리적인 반응에 개의치 않고, 그의 명예가 손상되는 위험을 무릎 쓰는 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악감정, 편견과 인종 갈등이 있는 와중에, 예수는 좋은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 좋은 이웃은 인간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사회가 강요하는 증오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이웃은 길을 떠나 여행하는 중간에 만난 상처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좋은 이웃이란 그의 적에게 손을 내미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파괴가 난무하는 때에, 주위에 증오가 가득 차고, 어두움이 밝은 이성을 가리고, 공포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어떠한 탈출구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주의 희망의 불빛은 자기 보호라는 본능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 주 하느님의 희망의 빛은 나 자신을 죽이기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화해의 다리, 사랑의 다리를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신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호스피탈러 준비를 위한 성 리카르도 팜푸리

독 서

성 리카르도 팜푸리 전기 “청진기에서 빗자루까지” 에서 발췌

에르미니오 팜푸리가 의대 2학년의 절반정도를 다니고 있을 무렵 1917년 4월에 이탈리아 군대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았다. 이 때 그의 나이 19세이었으며 유럽을 휩쓴 큰 전쟁이 일어나 그의 형제인 아킬레(Achille)는 이미 지난해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

의과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에르미니오 팜푸리는 의료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는 3달 동안의 기본 훈련을 받고 상등병계급을 달고 최전방 가까이에 있는 병원에 배치되었다. 몇 달 후에 그는 하사관으로 진급되었다.

1917년 9월 그는 그의 누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고 있다.

“지난 2주간 야전병원에서 상처를 싸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학살의 벌어지는 끔찍한 곳입니다. 부상입고 사지가 잘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의 축복이 내리어 이러한 끔찍한 형벌이 곧,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빕니다.”

하지만 에르미니오 팜푸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전쟁은 다음 해까지 이어졌다. 이탈리아 군대는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계속 후퇴만 하였으며 에르미니오 팜푸리는 이 와중에 도덕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았다.

군대가 후퇴만 거듭하던 때에 에르미니오 팜푸리는 많은 양의 의약 보급품을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귀찮은 물건들을 버려두고 살 길을 찾았지만 에르미니오 팜푸리는 전쟁의 혼란 속에 이 물품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는 농사꾼 수레에 의약품을 싣고, 길 잃은 소를 잡아 수레를 끌게 하여 퇴각하는 군대 뒤를 따랐다.

그의 수레는 기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말이 끄는 마차가 계속 그를 앞질러 지나갔다. 설상가상으로 비가 쏟아져 내려서 그는 속까지 완전히 비에 젖어 행군을 계속 해야 했다.

에르미니오 팜푸리는 약도 없이 남겨진 부상병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어떤 희생

을 치루더라도 그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였다. 몇 날 며칠이고 그는 힘든 행보를 계속했고 계속 비를 맞고 수면과 먹을 것 부족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결국 그는 간신히 보급품을 전선에 나를 수 있었고 부상당한 동료병사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때 얻은 피곤과 긴장으로 말미암아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성 찰

강도들한테 매를 맞아 팔다리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여행자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예리고로 가는 길가에 반죽음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의 흩어진 몸은 상처 입은 생명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때는 아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걸어 다니던 사람이 강도의 탐욕의 손에 희생자가 되어 한 발작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았다. 그 사람은 지나가는 여행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문제였다. "끼어들지 말자"가 그들의 신념이었고 기껏해야 그는 매정한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다.

여기서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이방인의 자손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의 적을 도왔다. 이러한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그를 도우기로 했다.

상처에 시원한 포도주와 부드러운 기름을 부어주고 치유를 바라는 바램이 담긴 붕대로 감아주며, 특히 여행을 중단하면서까지 그를 치료해 준 덕분에, 예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맞은 사람은 목숨을 건졌고 반 죽어서 쓰러져 있을 때보다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

매 맞고,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후퇴하는 부상병들은 전쟁에 찢겨진 길과 황폐해진 들판을 가로질러 급한 걸음을 하고 있었다.

사면이 황폐와 공포로 둘러 싸여 있는 곳에 아무도 기대치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외로이 의약품을 나르는 하사관이었다. 이 사람의 생각에 우선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부상당한 병사들이었다. 연고와 붕대들을 지켜 그의 가슴에 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안아 나르며, 폭력에 금이 간 세상에서 그는 주 하느님의 희망과 사랑을 생생히 간직하였다.

탐욕과 폭력의 시대에는, 희생자, 상처 입은 자, 장애자들이 제일 먼저 버려지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이 인간의 아픈 상처를 보고 일어나는 동정심을 행동에 옮긴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러지고, 변덕스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의 불꽃이 밝게 불타오르는 것이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호스피탤러로서의 성 리카르도 팜푸리

독 서

“청진기에서 빗자루까지” 전기에서 발췌

1928년 10월 24일 성 라파엘 축일에 리카르도 팜푸리는 수련기를 끝내고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의 수사로서 첫 서원을 하였다. 서원 후에 그는 이탈리아 브레스치아의 성 우르술라 병원 간호학교의 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주로 젊은 수사들이 간호 자격시험을 준비를 위해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다. 사람들은 그가 맡은 바를 아주 성실하게 해 내었고 교사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의 학생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리카르도는 또한 그 병원에서 치과의로 일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60년 동안 성 우르술라 병원 브레스치아 주민들을 위하여 치과 치료를 해왔고 수사들이 치과의로 봉사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 때 새로운 법에 의해서 치과 의들은 공인된 의과 과정을 마쳐야만 한다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리카르도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병원은 법에도 따르고 치과를 계속할 수 있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브레스치아의 치과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 리카르도는 유명해 졌다. 그리고 그는 곧 "작은 의사선생님"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알려 졌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지독한 치통 때문에 치과를 찾아왔다 이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아픔에 괴로운 것은 둘째 치고 치과 의사와 치료에 겁에 질려 있었다. 리카르도는 그의 특유한 쾌활함으로 어린 소년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아픈 어금니를 재빨리 뽑아버렸다. 치료가 끝났을 때, 그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이 돌았는데 그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고 하였다. 리카르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두 사람사이의 좋은 유대가 금세 회복되었다. "좋아, 이제 네가 돈을 낼 수 없다면, 내가 돈을 내겠다" 하고 그는 그 아이에게 2 리라를 주었다. 그 아이는 아픈 이를 뽑았을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생겨서 아주 좋아하며 병원 문을 나섰다.

그때부터 리카르도는 그의 치료를 받으러 오나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작은 것이라도 받아가도록 하였다. 곧 브레스치아의 어머니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병원에 "작은 의사선생님"께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왔다. 리카르도의 일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관구장은 리카르도가 치과 의보다는 신부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였으나 그는 리카르도의 축복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좋다고 하여 어머니들이 리카르도에게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청하는 일은 계속될 수 있었다.

성 찰

목수의 아들은 그의 민족의 하나뿐인 성스러운 성전에서, 신앙의 표상을 찾고자 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참된 믿음과 그의 종족의 투쟁의 역사를 위해 바쳐진 장소에서, 그의 제자들이 성전의 돌들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없고, 율법학자들은 배운 것을 뱉내고 그들의 좋은 머리를 자랑하며 율법의 훌륭한 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목수의 아들은 어디에서도 주 하느님을 찾을 수 없음을 보고 근심하고 계셨다.

어느 날 부자들이 시골벽적하게 헌금 궤에 돈을 넣는 가운데에 가난한 과부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아까와 하지도 않으며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몇 안 되는 동전을 성전의 헌금 궤에 넣은 눈에 띄지도 않는 의외의 행동으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황금보다도 그녀 주위의 모든 아름다운 석조건물보다도 학식보다도 더 큰 것이었다. 그녀의 경우가 이 장소가 뜻 하고자 하는 바로 참된 믿음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현대사회의 보건의료계를 가득채운 치유와 상처 속에서, 매일 인간의 목숨이 구해지거나 잃는 와중에, 우리시대의 질병에 대항하여 싸우는 매일의 전쟁에 훌륭한 정신과 정교한 기술을 가진 이들이 쉴 틈이 없는 때, 다음은 눈에 띄지도 않는 기대치 않은 행동이다.

- 사랑이 가득한 미소
- “작은 의사”의 선물

이것은 부끄러움을 없애고, 가난을 몰아내며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의 치유의 얼굴을 드러낸다.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머리를 어지럽게 할 때, 주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히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놓는 "과부의 헌금"과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의외의 행동으로 우리를 일깨우신다. 나는 매일 "작은 의사선생님"처럼 사랑 가득한 미소를 짓도록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우리의 이기적 시대의 얼굴에 금을 가게 하는 가난이라는 부끄러운 장애를 극복하도록 한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대 가치

환대(Hospitality)

수도회의 핵심가치로 양질, 존중, 책임감 그리고 영성이라는 네 개의 지도적 가치로 표현되어진다.

환대의 가치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하고 인간화(人間化)를 위한 전인적 자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대상자들의 욕구 파악하고 실천하며, 환대는 늘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법칙이다.

환대의 꿈은 감사함을 나누는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양질(Quality)

우리 서비스와 경영에서 필수적인 기반으로 탁월함, 전문성, 전인적 돌봄, 새로운 요구에 대한 인식, 협조자들과의 화합 모델, 협조자 상호간의 화합 모델, 천주의 성 요한의 케어 모델, 환영적이고 따뜻한 구조와 환경, 제 삼자들 즉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존중(Respect)

타인에 대한 존중, 인간화, 인간적 척도, 수사와 협조자간의 상호 책임, 이해, 전인적 비전, 사회정의, 시민권 및 인권의 증진, 가족구성원들의 참여와 시대가 요구하는 영역들(난민, 이주민 등)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을 의미한다.

책임(Responsibility)

천주의 성 요한과 수도회의 이상에 대한 충실함, 윤리(생명윤리, 사회윤리, 경영윤리), 환경에 대한 존중, 사회적 책임, 보존가능성, 정의,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영성(Spirituality)

사회적 돌봄, 복음화, 타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한 영적 돌봄 제공, 범세계적인 그리스도교의 일치, 그리고 본단, 교구, 타 종파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성찰

가치의 전승

부모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들의 믿음, 태도 또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수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가치들은 우리 행동으로 진정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가치들의 목록을 뽑는 것은 쉽다.

그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라고 벽에 붙여서 게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난받거나 조롱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에 관하여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나눔의 시간

본 교재와 교재 부록(자유롭게 1편 선택)을 읽고 나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 경험, 소감 등을 함께 나눈다.